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미디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유대인에 관한 인식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길아드 와이스

Percep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Jewish People through Media in Korean Society

A Thesis presented

By

Gilad Weiss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ruary 2016

미디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유대인에 관한 인식 연구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11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길아드 와이스

길아드 와이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월

위 원 장 박태균 (인)

부위원장 베르메르스 셈 (인)

위 원 은기수 (인)

Percep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Jewish People through Media in Korean Society

Professor Eun Ki 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November 2015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Gilad Weiss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Gilad Weiss

January 2016

Committee Chair	Park, Tae Gyun	(Seal)
Committee Vice Chair	Vermeersch, Sem	(Seal)
Committee Member	Eun, Ki Soo	(Seal)

<국문초록>

미디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유대인에 관한 인식 연구

길아드 와이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미디어에서 유대인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두 신문은 다른 정치적 경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인 반면, 『한겨레』는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두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유대 민족에 관한 한국인의 관점을 균형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유대인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논점은 크게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유대인의 교육'이나

'똑똑한 유대인'이라는 흔한 고정관념이다. 유대인의 교육이 그들의 '지적 우월성'과 놀라운 업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유대인의 힘'이다. 즉, 세계 정치, 미디어, 월스트리트와 할리우드를 지배하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음모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 사이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다. 마지막 주제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한국인들은 비슷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한국인은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유대인에 대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연구 기간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분석한 기간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이다. 2014 년 7 월 8 일에 이스라엘·가자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 전후의 일 년으로 기간을 그런 식으로 정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문 사설과 칼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사가 발표된 신문의 섹션을 '사설·칼럼'으로 한정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기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주요 단어를 검색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면 '유대인 + 교육', '유대인 + 돈', '유대인 + 힘', '유대인 + 이스라엘', '유대인 + 독일 + 일본', 전체 24 개의 결합을 검색하였다. 연구 기간과 검색어에 맞는 기사로 총 126 개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유대인의 교육'의 경우, 『조선일보』에서 이 주제를 다루거나 언급하는 사설이나 칼럼은 8 개였지만 『한겨레』에서는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들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훌륭하고 이상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그런 교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의 힘'과 관련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런 고정관념을 다루는 기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주의 깊게 읽으면 '유대인의 힘'과 관련된 개념이 존재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추정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의 경우 4 개로, 『한겨레』의 경우 2 개로 나타났다.

'중동 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겨레』는 『조선일보』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두 신문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이나 아랍인을 증오한다고 설명하지만, 팔레스타인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을 묘사하면서 『한겨레』는 '학살·도살·살육·살해'와 같은 단어를 쓴 반면 2014 년에 벌어진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조선일보』는 이와 비슷한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한겨레』에서 발표된 3 개의 기사는 이스라엘이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신문은 독일과 일본이 자국의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한다. 연구 기간 안에 발표된 기사 중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기사는 8 개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일본 지도자들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한 기사는 9 개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 대학살을 인정하지만 20 세기 전반에 조선인이나 다른 아시아인에게 자국이 저지른 잔학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기사가 『한겨레』에서는 게재되지 않았다. 『조선일보』에서 발표된 5 개의 기사는 과거사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방법을 적용하기를 추천한다. 특히 한국인들도 '사이몬 비젠탈 센터'와 같은 유대인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겨레』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보다 『한겨레』는 한국 내에 역사 교육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자행된 만행을 언급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는 4 개가 발견되었다. 『조선일보』에서 역사 교육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기사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 기사의 경우에는 1960 년대와 1970 년대의 한국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만행이 아닌 1923 년 간토대지진 이후에 벌어진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한국인의 기억을 비판했다.

한국에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다룬 많은 뉴스 보도, 사설, 칼럼이 있는 사실은 한국인이 유대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 분야뿐만 아니라, 출판 분야에서도 유대인에 관한 책과 학술 논문이 많고 인터넷 상에도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풍부하다.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에서 유대인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통해 유대인에 관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자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대인, 미디어 분석, 조선일보, 한겨레, 고정관념, 이스라엘

학번: 2013-24019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개관 - 한국인과 유대인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7
제 3 절 기존 연구 검토 10
제 4 절 자료와 연구 방법 16

제 2 장 한국 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 19
제 1 절 일반적 고정관념 19
제 2 절 한국 사회에서 존속하는 고정관념 20
제 3 절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기원 29
1)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30
2)『베니스의 상인』 32
3)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인식 35
4) 세계화 40
제 4 절 한국 대중문화에서 유대인들의 '페티시화' 42

제 3 장 '유대인의 교육' 51
제 1 절 도입부 -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에 관한 성경 해석학 51
제 2 절 신문 사설과 칼럼 53
1)『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54
2)『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60
제 3 절 이스라엘 국가에서 배우다 60
제 4 절 논의 62

제 4 장 '유대인의 힘' 64
제 1 절 도입부 64
제 2 절 신문 사설과 칼럼 64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66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70
제 3 절 논의 72

제 5 장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분쟁 74
제 1 절 도입부 -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혼용 74
제 2 절 신문 사설과 칼럼 80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81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83
제 3 절 논의 90

제 6 장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 92
제 1 절 도입부 92
제 2 절 신문 사설과 칼럼 93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94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107
제 3 절 논의 113

제 7 장 결론 116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16
제 2 절 연구의 한계 120

<참고 문헌> 122

<부록 - 분석한 사설과 칼럼>..... 142

< Abstract >..... 162

표 목차

<표 1> 주요 주장 별로 나눈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62

<표 2> 주요 주장 별로 나눈 '유대인의 힘'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72

<표 3> 주요 주장 별로 나눈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90

<표 4> 주요 주장 별로 나눈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113

그림 목차

<그림 1>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은 미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26
<그림 2>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은 아랍 테러 세력의 미국을 미워하는 이유다..... 26
<그림 3>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 장벽.... 26
<그림 4>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의 얼굴 특징..... 27
<그림 5> 김종빈. 『갈등의 핵, 유대인』. 위아래가 뒤바뀐 일부분 사해문서..... 29
<그림 6> 퀸비즈 밴드의 <Bad>라는 뮤직 비디오.....44
<그림 7> 퀸비즈 밴드의 <Bad>라는 뮤직 비디오..... 45
<그림 8> 투애니원 밴드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뮤직 비디오..... 46
<그림 9> 티아라 밴드의 <Yayaya>라는 뮤직 비디오..... 48
<그림 10> 이스라엘과 한국이 닮아간다고 주장하는 박노자의 칼럼에서 나온 일러스트레이션..... 86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 한국인과 유대인

한국인은 유대인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기여한 바를 언급한다. 또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교육방식과 습관을 계속 분석하고 본받는다. 예를 들면, 탈무드는 [1] 한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한국 부모들은 '유대인의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에게 탈무드를 읽어 준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한국에서 탈무드를 읽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추측도 있다 (*Ynet News*, 2011.12.5; *The Wall Street Journal*, 2014.5.14).

유대인에 대한 한국인의 호기심은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는 데서 비롯된다. 가령 한국인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두 민족은 수 천년 오래된 역사도

[1] 탈무드는 고대 기록의 모음이다 (서기 2세기에서 6세기까지 작성되었다). 성경 (구약 성서)과 함께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 대한 주요한 근원이다. 그것은 유대인의 시민·종교, 법률 전체를 설명하는 엄청나게 큰 모음집이다.

있고 전설적인 시조도 있다 (신화에 따르면, 단군은 기원전 2,333 년에 고조선이라는 한국 최초의 왕국을 세웠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성서의 세 족장 중 첫 번째 족장과 첫 번째 일신교 신자 아브라함은 기원전 1812 년에 태어났다). 근현대사에서도 두 민족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 세기 전반 동안 끔찍한 고난을 겪은 두 민족은 1948 년 같은 해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였다. 두 국가는 이웃 국가들과 전쟁 상태가 계속된다. 또한, 두 국가의 천연 자원이 부족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인적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적 가치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가치들에는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웃어른을 공경해햐 하는 가족의 가치도 포함된다 (Silving and Ryu, 1988: 393; *Ynet News*, 2011.12.5).

오늘날에 수백만 유대인과 한국인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귀향 서사' ('return narrative')와 결부된 한국인이 많고 유대인과 한국인의 유사한 이민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거나 외국 땅에서 살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소속감이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다 (Lewis, 1994; Kim, 2012: 119, 127). 디아스포라의 핵심 개념은 고향으로부터 벗어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Baumann, 2010).

유기천 (Paul K. Ryu, 劉基天)은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였다. 그는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 29 가지의 인류학적, 문화적, 언어적인 유사점을 자세한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사점은 각계 각층의 측면을 포함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아바 (*Abba*)라는 단어는 한국과 히브리어에 모두 있는데, 그 의미는 아버지보다 정확히는 '아빠(*daddy*)'이다.

2.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한국에서 정신집중이나 기도를 위한 매우 흔한 동작으로서 예루살렘 언덕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3. 전문적인 유급 중매쟁이가 한국과 유대인에 공통적이다.

4. 신부를 사는 돈 (한국어로는 '예장' [예단], 히브리어는 '모하르')이 약혼자에 의하여 아내될 사람의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5. 가발을 여자들이 흔히 사용했다 (한국어로 '타래').

6.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 7 일간의 애도기간 (히브리어는 '시바')이 히브리와 한국문화에서 행해지고 있다" (Ryu, 1997: 68-72; 유기천, 1999: 60-63).

목록에 포함된 유사점들 중에는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부수적이고 임의적인 것들도 있다. 유기천의 목록에 있는 많은 점들은 다수의 사회와 문화에 존재하는 관습과 관행을 반영할 수 있다. 유기천이 암시하고자 한 것처럼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 공통 조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역시 법학교수이자 유기천의 아내인 Helen Silving 은 한국인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라진 열 개의 부족들 자손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분명히 표명한다. 그녀의 자서전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이들 사라진 부족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한국인이라고 믿고 싶다" (Silving and Ryu, 1988: 652).

19 세기에 한국과 일본에 온 선교사 Nicholas McLeod 는 일본인이 이스라엘의 사라진 부족의 자손이라는 이론을 개진하였다. 그에 의하면 단군은 '단' 부족의 후손이다. 게다가, 단군의 후손들은 '셈족과 비슷한 특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얼굴'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Mcleod, 1879: 1). McLeod 뿐만 아니라, 한인과 '단' 부족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을 믿는 한국인도 있었다 (*Korea Times*, 1988.2.17).

신학자 Charles Allen Clark 는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또 다른 기묘한 공통점을 찾았다. 그는 석굴암의 원형 내부 벽에

새겨진 16 인물조각부조상의 얼굴은 유대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주장했고 "인물조각부조상의 얼굴은 분명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진다"고 주장을 했다 (Clark, 1961: 58, 221). Clark 는 음력 정월 14 일에 한국에서 거행하는 의식과 유대력 정월 14 일에 거행하는 유월절과 관련된 의식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222-223).

한국과 유대 민족 사이에 공통 조상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은 신중해야 한다. 사라진 열 개의 부족들은 기원전 722 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손에 의해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 추방된 고대 이스라엘의 열 두 개의 부족들 중 열 개의 부족들이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집단들이 사라진 부족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전세계 곳곳에서 나왔다. 인도 유대인 공동체,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 아르메니아 민족, 에스토니아 민족, 핀란드 민족과 미국 원주민들은 모두 사라진 부족들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유대인과 일본인의 공통 조상에 대한 이론도 만들어졌다 (Ben-Dor Benite, 2009; Shachan, 2007; Eidelberg, 2005). 그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풍부한 주장들은 그들이 유대인에 매료되었음을 보여 준다. 유대인과 관련성을 찾고 있는 집단은 이스라엘의 사라진 부족들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불행히도, 한국인의 유대인에 관한 인식과 표현들에서 고정관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인들의 인식은 매우 독특하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따라 유대인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한국은 서구에서 유대인에 대한 기존 관념을 수입하였다. 때때로, 이러한 고정관념은 반유대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늘 도전받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 Ben Halpern 는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반유대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아는데도 우리는 함정에 자꾸 빠진다... 이 용어는 강한 감동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요즘은, 어떤 사람을 '반유대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모욕하는 말이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사람은 보통 편집증 환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Halpern, 1981: 251).

필자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반유대주의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인 나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 한국인들이 질문하는 경우에 그들이 추정하는, 유대인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와 필자를

동일시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예를 들면, 필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유하거나 굉장히 똑똑하다고 짐작했다. 불행히도, 필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반유대주의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인이 한국 미디어에 묘사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조선일보』 신문과 『한겨레』 신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두 신문은 다른 정치적 경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인 반면, 『한겨레』는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두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유대 민족에 관한 한국인의 관점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논점은 크게 네 가지로 모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유대인의 교육'이나 '똑똑한 유대인'이라는 흔한 고정관념이다. 유대인의 교육이 그들의 '지적 우월성'과 놀라운 업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유대인의 힘'이다. 즉, 세계 정치, 미디어, 월스트리트와 할리우드를 지배하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음모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 사이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다. 마지막 주제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한국인들은 비슷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감정이다.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a.)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로 흔한가?

(1.b.)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한국인은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채택했는가?

(2.a.)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유대인의 교육'은 무엇인가? 이 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가?

(2.b.)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설명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3.a.) 한국 미디어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은 흔한가? 신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유대인의 습관을 모방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을 구별해야 하는가?

(3.b.)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차이가 있는가?

(4.a.) 한국 미디어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4.b.) 2014 년에 발생된 이스라엘·가자 전쟁 (또한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으로 알려진 전쟁이다) 후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문 보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4.c.)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에서 어떻게 다른가?

(5.a.) 유대인과 한국인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한국 미디어가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5.b.)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 문제과 관련한 보도에 차이가 있는가?

제 3 절 기존 연구 검토

선행 연구에서 미디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유대인에 관한 인식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없다. 단 그 중에 2008 년 12 월 27 일부터 2009 년 1 월 18 일까지 진행된 이스라엘·가자 전쟁(또한 '캐스트 리드 작전'으로 알려진 전쟁이다)에 대한 Podoler 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 연구에서 Podoler 는 본 연구에서 다룬, 『한겨레』에 보도된 이스라엘·가자 전쟁을 이미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한겨레』과 『조선일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하였다 (2013).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정치적 성향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미디어는 보수성과 진보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뚜렷이 나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그 양극화된 담론을 반영한다. 『조선일보』는 1920 년에 설립되었고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사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겨레』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 동안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자들에 의해 1988 년에 설립된 신문이다. 그 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Shin, 2010: 34; Lee, 2001: 168-9). 한국 '얼터너티브

미디어'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겨레』 신문이 설립된 것이다 (Park, Kim and Sohn, 2000: 120).

한국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에서의 보수적인 성향의 특징은 강한 반공산주의,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수출 주도형 경제, 친(親)비즈니스파(派)를 지지하는 것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의 특징은 북한에 대한 덜 비판적인 태도, 강한 시민 사회, 친(親)노동을 지지하는 것 등이다 (Hahm, 2004: 414).

손영준은 미디어 이용이 보수·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이용할수록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대북의견을 가졌으며,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를 이용할수록 더 진보적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손영준, 2004: 240).

한국 미디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두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연구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권과 햇볕정책 (Park, 2002), 북한, 햇볕정책과 한미관계 (Shin and Burke, 2009; 김재한, 2009), 한국인의 반미 감정과 한미관계 (Jung, 2010), 한국에서 벌인 반미 시위 (Song, 2007), 노무현

정부 시기와 남북문제 (이원섭, 2007), 미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 (Lee and Koh, 2010), 2000 년에 의회의 선거에 대한 뉴스 보도 (Min, 2004), 독도에 대한 뉴스 보도 (Yoon and E, 2002), 기후 변동에 대한 뉴스 보도 (Yun, Ku, Park and Han, 2012), 영국과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뉴스 보도 (Kim, 2011), 호주에 여행으로 가기 (Lee, Gross and Lee, 2010).

처음에 언급했 듯이 한국인들이 유대인들의 우수함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교육방식을 계속 분석하고 있고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연구도 엄청나게 많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유대인의 교육방식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들의 자녀가 유대인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문서에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서들을 찾아 읽기도 하고, 특히 탈무드는 한국에서 베스트 셀러까지 되었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한국에서 탈무드를 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추측도 있다 (*Ynet News*, 2011.12.5; *The Wall Street Journal*, 2014.5.14).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대 경전 (토라 -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탈무드)은 그들의 교육의 토대로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둘째, 유대 부모들은 가정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고 자식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토론 문화는 유대인의 창의력을 키우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대인 자녀는 자꾸 질문을 하고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 부모들은 '하브루타' (말 그대로 우정이나 동료애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경전을 분석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공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자녀의 창의력을 강화한다 (오대영, 2014; 류태영, 2013; 민대훈, 2005).

'유대인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까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은 한민족과 유대민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근대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눠진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기천은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 29 가지의 인류학적, 문화적, 언어적인 유사점을 자세한 목록으로 만들었다 (Ryu, 1997: 68-72; 유기천, 1999: 60-63). 조철수는

언어적 유사점에 초점을 맞췄고 심지어 한글의 음운 체계가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히브리어의 글자와 한글의 글자 사이에 유사점을 찾는다 (조철수, 2003: 349-370).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종고는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 조사를 제공한다. 그 조사는 옛날에 두 민족 사이에 접촉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최종고는 일본에 가는 중에 백제 왕조를 거친 하타 씨족 (秦氏)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라진 열 개의 부족들의 자손에서 나온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1904 년부터 1905 년까지 러·일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 병사를 언급하고 한국인과 하얼빈(哈尔滨市)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 병사도 언급한다 (Choi, 2009). 법학과 교수 최종고는 한국 법률교육제도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 몇 명을 연구한다 (최종고, 2010).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완료되었다. 많은 미국 유대인 상인들은 유대인과 한국인의 이민 경험 사이의 유사점을 찾는다. 사회 학자 Jennifer Lee 에 따르면 유대인 상인과 마찬가지로 한국 상인들은 "아메리칸 드림과 기회 균등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함, 모래와 절약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 (Lee, 2002: 39).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유대인의 또 다른 유사한 특성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어떤 한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미국 생활에 통합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모델로서 간주한다 (Lewis, 1994: 8).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주재 한국 전 대사 마영삼은 한국 전쟁 당시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알려지지 않은 역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 (Ma, 2010). Song 은 한국 전쟁이 서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외교적인 비동맹 정책 변경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Song 에 의하면 기독교 한국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관계의 토대는 신앙에 대한 상호 이해라고 강조한다 (Song, 2014). Levkowitz 는 중동 여러 나라와 한국 사이에 경제, 외교 및 보안적인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Levkowitz, 2010, 2012).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확산된 한류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Otmazgin and Lyan, 2013; Lyan and Levkowitz, 2015).

제4절 자료와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유대인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을 검토할 것이다. 서구에서 유입된 이러한 고정관념이 한국에 얼마나 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해 서양에서 만들어진 관념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유입되었는지 그 네 가지 경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고정관념을 채택한 한국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유대인들을 페티시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 네 장은 연구의 주요 부분이다. 각 장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언급된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검토할 것이다. 이 주제는 '유대인의 교육'과 '똑똑한 유대인'과 관련한 고정관념, '유대인의 힘'과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론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아랍 분쟁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이다. 두 신문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서 각 신문에서 반복되는 서술을 확인하려고 한다.

분석한 기간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이다. 2014 년 7 월 8 일에 이스라엘·가자 전쟁 (또한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으로 알려진 전쟁이다. 전쟁은 그해 8 월

26 일에 정전으로 끝났다)이 발발했는데 전쟁 전후의 일 년,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문 사설과 칼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사가 발표된 신문의 섹션을 '사설·칼럼'으로 한정했다. 대부분의 칼럼은 전문가에 의해 쓰였기 때문에 대중은 필자의 주장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설은 신문의 공식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사설과 칼럼은 다른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에 비해 공개적인 비평을 더 자주 한다. 따라서 이 섹션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힘', 이스라엘·아랍 분쟁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 이러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주요 단어를 검색할 필요가 있었다. 검색하기로 결정한 주요 단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주제와 관련한 주요 단어로 이루어진 네 가지 결합을 검색하였다 - '유대인 + 교육', '유태인 + 교육', '유대인 + 탈무드', '유태인 + 탈무드'.
- 둘째 주제와 관련한 주요 단어로 이루어진 열여섯 가지 결합을 검색하였다 - '유대인 + 돈', '유태인 + 돈', '유대인 +

파워', '유태인 + 파워', '유대인 + 힘', '유태인 + 힘', '유대인 + 권력', '유태인 + 권력', '유대인 + 세력', '유태인 + 세력', '유대인 + 지배', '유태인 + 지배', '유대인 + 장악', '유태인 + 장악', '유대인 + 통제', '유태인 + 통제'.

- 셋째 주제와 관련한 주요 단어로 이루어진 네 가지 결합을 검색하였다 - '유대인 + 이스라엘', '유태인 + 이스라엘'.
- 넷째 주제와 관련한 주요 단어로 이루어진 두 가지 결합을 검색하였다 - '유대인 + 독일 + 일본', '유태인 + 독일 + 일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신문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2] 또한, 유대인과 관련한 고정관념으로 가득찬 묘사를 다루는 장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둘러싼 음모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특히 '천안함'이라는 한국 해군 선박의 침몰에 대학 음모를 다루는 부분) 여러 블로그에서 발표된 글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이 블로그 글들 중 일부는 『한겨레』 블로그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

[2] 『조선일보』에서 발표된 기사는 다음 링크로 접근할 수 있다. http://search.chosun.com/search/total.search.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는 다음 링크로 접근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

제2장 한국 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

제1절 일반적 고정관념

한국에서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흔한지를 확인하기 전에 고전적인 고정관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옛날부터 번창하던 유대인에 대한 몇 가지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다:

- 유대인들의 얼굴의 특징과 관련한 고정관념 - 유대인들의 코는 갈고리 모양이다. 반유대주의 선전에서 유대인들은 코주부로 묘사된다 (Chang and Kleiner, 2003).
-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글로벌 미디어, 정부 그리고 할리우드를 다 지배한다.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사악한 유대인들이 여러 어두운 조직으로 세계 지배를 수행할 음모를 꾸민다 (Chang and Kleiner, 2003).
-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아는다 (Chang and Kleiner, 2003).
- 유대인들은 희생 양이다 - 세계 문제의 대부분은 유대인 때문이다.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유대인들이 노예 매매에 책임도 있고 (Rose, 1994) 가부장제를 만든 데도 책

임이 있다 (Plaskow, 1980). 이는 수많은 예들 중에 두 가지 예이다.

- 다른 고정관념 - 유대인 소년은 뚱뚱하다. 유대인 여자는 매력적이지 못하고 인기가 없다. 유대인 여자는 버릇없고 시끄럽고 품위 없는 'JAP' ('Jewish American Proncess') 이다. 유대인 남자는 외국인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다. 등등 (Woodbury, 2003).

제2절 한국 사회에서 존속하는 고정관념

한국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존속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이 있다. 한국어 사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80 판 『엣센스 영한사전』은 'Jew'와 'Jewish'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특징을 사용한다.

> "Jew - 1. 유태인, 히브리인; 유태교 신자. 2. ((구어)) 수전노; 간상배, 고리대금업자: an unbelieving ~ 의심 많은 사람. 'Go to the Jews' -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꾸러 가다. 'Rich as a Jew' - 큰 부자인".

"Jewish – 1. ((구어)) 속이다, 속여 넘기다. 2. ((미: 구어)) 값을 깎다

((down)); …와 흥정하다".

"'Jew baiting – (조직적인) 유태인 박해. 'Jew's ear – 해파리버섯 ((목이버섯의 일종))." [이스가리옷유다가 그버섯의 커지는 딱총나무에 목을 매어던 신념으로 불린다]. 'Jew's harp' – 구금 (口琴) ((이로 물고 손가락으로 타는 간단한 악기))" (『옛센스 영한사전』, 1980: 848).

1991 판에는 다른 수정사항들이 포함된다.

"Jew – … 값을 깎다, 빡빡한 흥정을 하다 ((이런 뜻의 속어적 용법은 유태 사람에 대하여 극히 모욕적인 언사가 되므로 사용을 피해야 함)). Jewish – 탐역한" (『옛센스 영한사전』, 1991: 1227).

2014 판은 다음 표현도 포함한다.

"Worth a Jew's eye – 지극히 귀중한. Jewish – ((경멸)) 탐욕스러운" (『옛센스 영한사전』, 2014: 1358).

한국과 해외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용하는 이러한 사전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존속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Lewis, 1994: 11).

『엣센스 영한사전』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존속시키는 다른 사전도 있는데 이러한 일은 재발되고 있다. 온라인 사전이나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 전화에 탑재된 사전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유대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기가 많은 『네이버 사전』은 'Sheeny' (Sheenie), 'Mocky' (Mockie) and 'Hebe'과 같은 경멸적이고 공격적인 별명을 제공한다. 게다가 이상한 'Peculiar People'도 제공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Jews'에 관한 아래의 예문은 무지,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를 반영한다.

"나는 유대인이 되고 싶지 않다",
"유대인, 하지만 그는 남자답게 죽었어! ",
"음,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나 다름없다".

그 중 한 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주장할 만하다.

> “유태인들은 구세주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예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인식을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유대인', '유태인', 『네이버 사전』).

모두 삼성 휴대 전화에 탑재된 YBM 사전은 '역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예를 제공한다.

> “저 유대인도 역시 욕심이 많다” (“역시” *YBM All in All Dictionary* 앱).

한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믿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ADL GLOBAL 100'이라는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조사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2014 년 5 월에 '폄하반대연맹' (Anti-Defamation League)에 의해 발표된 포괄적인 조사이다. 이 조사는 반유대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100 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아르메니아의 뒤를 이어 3 번째 반유대주의적인 국가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성인 인구 중 반유대주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53%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인 26%에서 보면 두 배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인은 반유대주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20%로 나타났고 일본인은 23%로 나타났다 (Anti-Defamation League, 2014).[3]

만화가와 그래픽 디자인 대학 교수 이원복은 어린이에게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베스트 셀러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만화책의 작가다. 미국을 다룬 3 권 중에서 '유대인을 알아야 미국이 보인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이라는 장은 미국이 유대인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주장한다. 만화 그림은 『시온 장로

[3] '폄하반대연맹'은 미국에 본사를 둔 유대인 비정부조직이다. 그 목적은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막는 것이다. 'ADL Global 100'이라는 설문 조사 인터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완료되었다. 응답자는 다음 11개의 표현 중 6 개에 동의할 경우에는 반유대주의자로 간주되었다.
1. 유대인들은 거주하는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에 더 충실하다.
2. 유대인들은 재계에 너무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3. 유대인들은 국제 금융 시장에 너무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4. 유대인들은 여전히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서 그들에게 무슨 만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5.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
6. 유대인들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통제한다.
7. 유대인들은 미국 정부를 너무 많이 통제한다.
8.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9. 유대인들은 글로벌 미디어를 너무 많이 통제한다.
10. 유대인들은 세계 대부분의 전쟁에 책임이 있다.
11. 유대인들이 행동하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한다.
'ADL Global 100'의 자세한 결과가 ADL 웹사이트에서 발표되었다. http://global100.adl.org (2015년 6월 24일 접속).

의정서』[4] 라는 반유대주의적인 성명서나 나치 선전에 나오던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다. 이 만화책은 미디어를 지배하는 유대인과 관련된 음모론을 재활용한다 (그림 1). 이원복에 의하면 유대인은 9·11 테러 공격에 책임도 있다. 왜냐하면 "아랍 테러 세력이 이를 갈며 미국을 미워하는 이유도,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자살 공격으로 무너뜨린 것도, 바로 WASP 들 뒤에서 돈과 언론을 무기로 미국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유대인 때문이다." (그림 2). 다른 만화 그림은 길 가는 사람을 다윗의 별과 'STOP' 단어가 그린 장벽은 막는 것을 보여준다. 이원복은 "마지막에 가서 번번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장벽이지"로 설명한다 (그림 3). 이원복의 만화는 유대인의 얼굴 특징도 포함한다 (그림 4).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팔을 늘이는 문어로 묘사된 고전적인 유대인 이미지도 있다 (J.P. Morgan 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원복은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 여긴다). 사이먼 위젠탈 센터와 같은 유대인 조직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먼나라 이웃나라』가 국제

[4] 『시온 장로 의정서』는 제정 러시아 비밀경찰에 의해 만들어진 위조된 책이다. 그 내용은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노예로 만들고 싶은 유대인의 음모에 대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가짜임에도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 가짜는 나치 선전을 고무하고 정당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전 세계 반유대주의자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Landes and Katz, 2011). 최이리유카바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반대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여겼다 (Simon Wiesenthal Center, 2007; *Asian Correspondent*, 2008.3.16).

<그림 1>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은 미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림 2>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은 아랍 테러 세력이 미국을 미워하는 이유이다.

<그림 3>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 장벽.

<그림 4>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 유대인의 얼굴 특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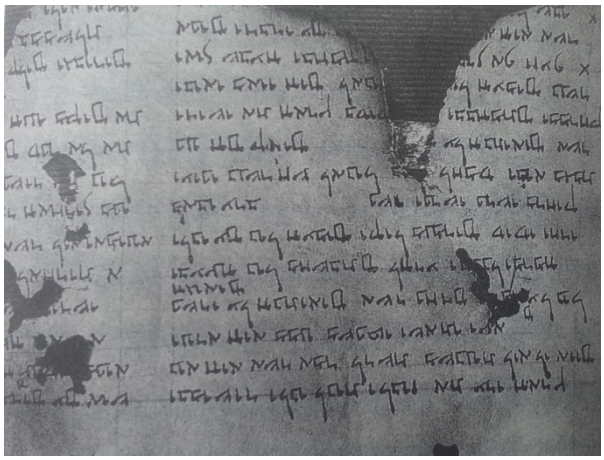
이원복은 나중에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관련 부분을 수정하기로 약속했다 (사실, 이후에 출판된 판에 만화 그림들 중에 일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원복의 사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대신에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한국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재미교포가 사과의 말을 전했다.

> "이 교수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이번의 일로 한인과 유대인 간의 우의와 협력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유대인 비하?". 이한수, 『조선일보』, 2007 년 2 월 16 일).

[5] <그림 1-3> Simon Wiesenthal Center. 2007. "Wiesenthal Center Denounces Nazi-Like Depiction of Jews by Prolific and Popular Korean Author." February 8, Accessed July 11, 2015. http://www.wiesenthal.com/site/apps/nlnet/content2.aspx?c=lsKWLbPJLnF&b=4442245&ct=5852979#.VaB1S2aweUk. <그림 4> 이원복, 2012: 227.

기자와 문예 비평가 김종빈은 『갈등의 핵, 유대인』이라는 책을 썼다 (2001). 그의 분석은 그가 워싱턴에 사는 동안 있었던 유대인과 아랍인들과의 많은 만남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책의 서론의 제목은 '갈등과 분쟁의 몸통은 언제나 유태인이었다'이다 (김종빈, 2001: 4).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책은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하다. 유대인들은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사법권, 미디어와 문화를 다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수한 지능으로 투자 금융, 월스트리트와 재계를 지배한다고 한다 (4-51). 김종빈은 유대인들이 논쟁을 초래하고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고정관념을 지지한다. 독자들에게 유대인의 권력을 경고하듯이 1995 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조직의 목록을 포함한다 (324-335). 사소한 잘못했던 실수라도 사해문서를 논의한 장을 살펴보면 김종빈의 유대인에 대한 그의 전문가다움이 발견된다. 그는 사해문서 일부분의 사진을 거꾸로 붙였다.

<그림 5> 김종빈. 『갈등의 핵, 유대인』. 위아래가 뒤바뀐 사해문서의 일부분.[6]



여기까지 살펴보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국 사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영한 사전, 아동도서 그리고 학술적 저작으로 이 고정관념이 존속된다. 특히 'ADL 100'이라는 조사의 결과는 우려한 만하다.

제3절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기원

다음 절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한국에 유입된 네 가지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첫 번째 유입 방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입

[6] 김종빈, 2001: 259, 뒤표지.

방식들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유대인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유대인들의 상당 수가 한반도에 도착한 것은 러·일 전쟁 (1904-1905) 시기가 처음이었디. 약 33,000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전투에 참여했다. 이 전쟁은 일본과 한국에 전 세계 은행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힘에 관한 신화를 유입하는 전환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Jacob Schiff (1847-1920)라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은행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 유대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해 일본의 군사 승리를 위해 대출금을 마련했고 일본에서 영웅이 되었다. Schiff 는 미국인으로 일본을 돕지 않았고 유대인으로 도와 주었다. 마련한 돈도 주로 미국 돈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의 주목을 끌었고 그들에게 '유대인'과 돈에 무제한 접근하기 쉬움은 같은 뜻을 갖는 것이 되었다 (Lewis, 1994; Tokayer and Swartz, 1979: 46).

악명 높은 『시온 장로 의정서』가 20 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동아시아에 유입되었다. 1919 년에, 일본군이 공산 혁명을 중단시키려는 결사적인 시도로 러시아 백군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러시아 장군 Gregorii Semonov (1890-1946)는 각각의 병사들에게 『시온 장로 의정서』를 배포하였다. 러시아 군인과 일본인이 그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고 자기 땅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할 음모를 가졌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회 안녕을 위협도 하고 일본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Tokayer and Swartz, 1979: 46-48, 58). 『시온 장로 의정서』는 Higuchi Tsuyanosuke (樋口 海词在线词典, 1870-1931) 과 Yasue Norihiro (安江 仙弘, 1886-1950)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일본의 지적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일본이 나치 독일에 가까워지면서 일본을 위협하는 유대인에 관한 음모론은 확산되었다 (Goodman, 2011: 135-136). 일본의 식민지 시기 동안 한국인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에는 '猶太禍' (Yudayaka, 유대인 재앙) 선전에 의한 신도, 불교가 깊이 개입이 있었는데 이러한 선전에서 『시온 장로 의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대인들이 일본을 파괴할 계획을 가졌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1923 년에 왕세자 히로히토 (昭和天皇)에 대한 암살 시도나 같은 해 9 월에 발생한 간토대지진 이후에 유대인과 관련한 소문이 유포되었다 (Kovalio, 2009: 2).

Schiff 의 러·일 전쟁에의 개입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시온 장로 의정서』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대인의 세력에 대한 신화가 일본과 한국 학교에 도입되었다 (Lewis, 1994).

2) 『베니스의 상인』

1920 년대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소수의 희곡만이 영어나 일본어로부터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에서 극단에 의해 셰익스피어의 한 장면이 처음으로 연출된 것은 1931 년 『베니스의 상인』의 재판 장면이었다. 『베니스의 상인』은 1930 년대와 1940 년대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희곡이 되었다 (Kim, 1995: 37-40). 희곡은 베니스에 거주하는 상인 안토니오가 유대인 대금업자 샤일록에게 3000 더컷의 금액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이다. 안토니오로부터 학대를 받던 샤일록은 처음에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거부했지만 결국 안토니오가 그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한 파운드의 살을 가진다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안토니오가 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이 열렸다. 결국 안토니오는 목숨을 구하고 패배한 샤일록은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하게 되었다.

『베니스의 상인』과 샤일록의 캐릭터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오랜 논쟁 대상이 되었다. 일생 동안 유대인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우리는 그가 그러한 캐릭터를 창조할 수 없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안토니오가 명백한 반유대주의자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반유대주의자로 스스로를 정의했다 (Nevo, 1980: 128).

김종환에 따르면 한국에서 『베니스의 상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고리대금업,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희곡의 '해피 엔딩'은 한국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졌고 그들은 모두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샤일록이라는 캐릭터의 대조적인 내면에 매료되었다. 한국인들이 샤일록의 유물론을 싫어했지만 일제 강점 하에서 억압을 받던 그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희생된 샤일록에 동정심을 가졌다 (Kim, 1995: 40).

이종숙은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샤일록의 잔인함과 치사함 때문에 그의 편을 들어준 한국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재판 장면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된 희곡이 그 당시 일제 강점 상황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연출된 『베니스의 상인』은 반유대주의적인 해석을 지지한다고 강조한다 (Lee, 1997: 73).

샤일록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의 캐릭터, 그리고 희곡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존속에 기여하였다. 희곡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이 흔한 것이 되었고 동정적, 윤리적,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인과 욕심이 많은, 믿지 않는,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진다. 흔한 해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돈밖에 관심이 없고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서길수, 2014; 최이리유카바, 2002: 14).

한국에서 『베니스의 상인』 희곡은 만연한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함께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베니스의 상인』 주제로 백일장이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마음씨가 착한 기독교인들과 사악한 유대인들 사이에 이분법적인 선이 그어진 것으로 가득하다. 즉, 안토니오는 친절한데 샤일록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어른들은 안토니오와 예수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고 욕심이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4학년 학생 박선향의 설명을 그대로 옮긴다.

"샤일록은 기독교인인 안토니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를 죽일 생각으로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원하는 부분의 살 한 파운드를 베어 가겠다'는 차용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샤일록은 정말 못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샤일록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안토니오를 죽이고 싶은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다가 결국은 자기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 34 회 어린이 작품 공모전 당선작』).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소속이 아닌, 그들의 교회 소속만 언급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인식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인식

이전 연구는 더 큰 종교적인 근본주의, 더 빈번한 교회 출석, 외적인 종교 성향, 그리고 '자기의 믿음밖에 진정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과 관한 종교의 개별주의가, 이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편견과 관련이 있임이 입증되었다. 신성한 것이 위반되거나 위협될 때, 사람들은 그러한 귀중한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Pargament et al., 2007: 144-145).

따라서 편견을 늘리는 것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 이해된다.

종교는 모두 폭력적이고 평화로운 행동을 격려할 수 있다. 편견과 증오에 관하여 편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종교적인 믿음 중에 하나는 자기의 믿음은 완전하고 독점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종교적인 믿음을 틀린 것으로 폄하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Silberman, 2005: 535). 이 점은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인식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신성한 가치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훼손하고 기독교의 신성한 가치관에게 위협을 가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반유대주의를 촉발시킨 사람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Pargament et al., 2007: 146). 기독교의 신성한 가치관을 훼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에는 예수의 십자가형에 책임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에 여전히 유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추종자들을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은밀히 경멸한다. 유대인이 받던 박해와 고난은 신의 섭리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Glock and Stark, 1966: 60-80).

Carroll 은 "유대인에 대한 근본적인 기독교의 모함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법률, 복수, 형벌의 하나님이지만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사랑, 자비,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Carroll, 2001: 117-118).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약 성서의 하나님'을 거부한다. Smith 는 미국에서 보수적인 종파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고 기독교로 개종하기에 적합하다 (Smith, 1999).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또 다른 요소는 '유대인에 대한 애정'이라는 기독교의 가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본의 아니게 진정한 신앙을 모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그러한 믿음이 유대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늘린다. (Pargament et al., 2007: 156-157). Carroll 은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논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동정이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 큰 피해를 입힌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Carroll, 2001: 152). 따라서, '유대인에 대한

애정'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위협으로 유대교를 폄하하는 것을 부추킨다.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믿음은 일부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자칭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책에서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증오를 강조한다.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책에서 저자인 김종철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한다고 주장핸다. 그에 대한 증거는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유대인들은 구급차에 적십자 대신에 빨간 다윗의 별 (*Magen David Adom*)을 표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슬람 국가와 바찬가지로 적신월사를 사용한다). 게다가, 사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로터리만 사용한다 [!].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느끼는 증오를 설명하기 위해 김종철은 유대교 내에서 오래 전에 발생한 분할과 여러 집단 (바리사이바, 사두개파과 기독교의 선구자 중에 있었던 에세네파라는 집단) 사이에 생겼던 적대감을 언급한다 (김종철, 2010: 45-51).

김종철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유난히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제 5 장의 제목. 115 쪽). 그에 의하면 유대인 여성들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보석, 화장품, 패션제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132-133). 이처럼 수치스럽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손혜신의 책 『유태인 & 이스라엘 있는 그대로 보기』에서도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관련한 장이 포함된다. 그런데 김종철과 다르게 그녀의 설명은 독설적이지는 않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수천년 동안 기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손혜신, 2005: 77-79).

몇몇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학자들, 언론인들의 이러한 관점은 Smith 의 미국 보수적인 종파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둘 모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훼손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도움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Pargament, Trevino, Mahoney 와 Silberman 은 통찰력 있게 "반유대주의는 신성한 가치관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된 것을 보호하는 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설명이 반유대주의나 다른 편견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007: 156). 이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4) 세계화

『시온 장로 의정서』는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Goodman 은 "유대인에 대해 지식은 필요가 없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좋은 사상뿐만 아니라, 사악한 관념도 증식된다"고 말한다 (Goodman, 2011: 147).

한국에서도 한국어로 번역된 반유대주의적인 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최이리유카바는 『시온 장로 의정서』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또한 『시온 장로 의정서』에서 유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고 그 책이 거짓임을 주장한 Jacobs 과 Weitzman 의 *Dismantling the Big Lie: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이라는 책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최이리유카바, 2002a; 2006; 제이콥스·바이츠만, 2008).

히틀러의 『나의 투쟁』도 한국어로 몇 번 번역되었고, 아직도 재판되고 있다. 최근에 악명 높은 『시온 장로 의정서』에 근거하여 헨리 포드가 쓴 『국제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포드, 2013). Richard E. Harwood 필명으로 출판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Richard Verrall 의 오명 높은 『정말 600 만이 죽었나?』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하우드, 2014).

한국어로 독서할 수 있는 다른 반유대주의적인 책은 우노 마사미 (宇野 正美)의 책이다. 오사카 성경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 목사 마사미는 『유태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와 『[세계 지배를 노린] 유태인의 세계 경제 전략 : 세계의 경제·정보·매스컴을 장악』과 같은 책을 썼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우익 단체에 영향을 받던 마사미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일본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 정치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우노 마사미, 1991; 2001; Goodman, 2011: 142-143).

반유대주의는 번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어로 출판된 작품으로도 한국 사회에 도입된다. 『시온 장로 의정서』를 번역한 최이리유카바가 유대인들과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장악한 비책을 다룬 『그림자 정부: 숨겨진 절대 권력자들의 세계 지배 음모』, 그리고 『9·11 위대한 기만』과 다른 위대한 작품을 썼다 (최이리유카바, 2002b; 2005).

번역되지 않는 또 다른 반유대주의적인 작품에 대한 예는 박재선의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이다. 위에서 언급된 김종빈과 마찬가지로, 박재선은 유대인 개인의 목록을 포함하였다. 목록은 147 페이지 이상에 걸치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포함한다. 목록에서 언급된 이름 중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 (박재선, 2010: 396-542).

사악한 사상과 음모론의 확산 과정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것이 옛날보다 쉽고 인터넷 연결과 키보드만 있으면 된다. Goodman 이 말한 바와 같이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제4절 한국 대중문화에서 유대인들의 '페티시화'

페티시는 "마술적, 정신적인 힘을 가진 것을 믿게 되는 물건"이다. 또한 "비정상적이고 강박적인 집착이나 애착, 고착 관념이다"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11*). 한국에서 유대인,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출판물이 넘쳐난다는 것은 한국인의 유대인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4 절에서는 그 집착이 마술적, 정신적, 사탄과 같은 세력을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페티시화'는 다윗의 별과 같은 유대교의 상징을 가진 제품의 판매로 드러난다. 귀걸이, 팔찌와 목걸이 같은 보석들을 여러 한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실, 6 선 성형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그것을 다윗의 별과 같은 유대교의 상징으로 명시적으로 서술한다. 예를 들면 『코코 샤인』이라는 웹사이트는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처럼 빛나는 육각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다 (『코코샤인』, 2015). 중국 온라인 소매서비스업 『알리이스프레스』의 한국어로 만든 웹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다윗의 이스라엘 스타"라는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제품의 속성들에는 'K-POP'과 '사탄'이라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알리이스프레스』, 2015).

실제로, 여러 K-POP 스타가 다윗의 별을 가진 상품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퍼 주니어 맴버 중에 K-POP 스타와 EXO (엑소) 밴드의 전 멤버 크리스가 다윗의 별 목걸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 맴버 이성민은 다윗의 별 귀걸이를 했던 적이 있다 (*FY! EXO*, 2013.12.24; *To Infinity and Beyond Blogshop*, 2012.10.2).

다윗의 별과 K-POP 사이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몇 가지 뮤직 비디오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Queen B’Z (퀸 비즈) 밴드의 <Bad>라는 비디오를 살펴보자. 그것은 사탄의 속성, 흡혈귀, 격렬한 성관계, 피와 죽음으로 가득한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비디오이다. 비디오의 한 지점에서 남자-괴물-흡혈귀 캐릭터가 피해자의 등에 다윗의 별을 새긴다. 그 별은 다윗의 별로 판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히브리어로 글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자가 사탄에게서 (보복을 수행할 밴드 맴버에 관하여 훙령이나 경고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받고, 화면에 사탄에 대한 또 다른 이름 'בַּעַל זְבוּב' (Beelzebub, 바알세불)이 히브리어로 나타났다 (바알세불은 파리대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7). 알리이스프레스 웹사이트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사탄의 이름은 유대교와, 그 상징을 사탄과 명확하게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 퀸비즈 밴드의 <Bad>라는 뮤직 비디오. 죽은 여자의 시체에 새겨진 다윗의 별.

<그림 7> 퀸비즈 밴드의 <Bad>라는 뮤직 비디오. בַּעַל זְבוּב, Beelzebub, 바알세불.[7]

2NE1 (투 애니원) 그룹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비디오에서는 한 맴버가 6 선 성형을 가진 모자를 쓴다.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게시된 글에서 그 상징이 유대교의 다윗의 별이나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다음 블로그』, 2011.6.29). 또 다른 블로그 항목은 6 선 성형이 신성의 상징으로 다양한 '비술적인 단체' (occult groups)에 의해 수 세기 동안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모자에서 나온 별도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유대인과 일루미나티 (유럽에 있었던 몇 가지 비밀 단체)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일루미나티의 지지자는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다윗의 별은 '강력한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여겨진다 (*SUFF*, 2014.2.14).

---

[7] <그림 6-7> Youtube. Queen B'Z (퀸비즈) 밴드의 <Bad (Original Ver.)>라는 뮤직 비디오. Accessed July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0PzMIU4FVcg.

<그림 8> 투애니원 밴드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뮤직 비디오. “'강한 사람'의 상징”.[8]

유대인과 프리메이슨의 병치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학자 Jacob Katz 는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반유대주의나 반프리메이슨을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썼다"고 말한다. 유대인을 프리메이슨과 결합하는 것은 두 개의 세계 대전 사이에 유럽 전역에서 대중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생된 드레퓌스 사건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 Katz 는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과 프리메이슨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동맹을 형성했다는 인상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프리메이슨과 작당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싶은 유대인 장로 회의의 음모를 묘사하는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책자가 주여한 역할을 했다. 그 책자는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등장했고 1919 년에 독일어로 번역되었으며 그 다음에 여러 언어로 수백만 사본이

[8] <그림 8> Youtube. 2NE1 (투 애니원) 밴드의 <I AM THE BEST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뮤직 비디오. Accessed July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j7_1SP8Vc3o.

전파되었다"고 말한다 (Katz, 1970: 1-4). 즉,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의 병치는 두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신화와 전설도 강화하며 그들이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초능력에 대한 견해를 강화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대인들이 초자연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프리메이슨과 그들을 병치한다. 인터넷에서 유대인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관련한 음모론뿐만 아니라 사탄, K-POP, 공산주의, 자본주의, 일본, 외계인, 휘트니 휴스턴, 9·11 테러 공격, 에볼라, 세월호의 비극적인 침몰은 다 함께 결합하고 음모론을 만드는 것이 많다 (『진실은 생명이다』, 2013.9.9; *Myblowoorld*, 2011; *Information Collect*, 2015). 이 음모론이 우스꽝스러운 뒤죽박죽을 이루고 있음은 우리의 관심 밖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 세계에 많은 현상과 사건이 깊고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그들은 발생된 사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로 사악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맥락에서, 유대인들, 그들의 습관과 특징이 특별한 자리를 따로 잡는다.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사용한 또 다른 예는 <Yayaya>라는 T-ara (티아라) 밴드의 뮤직 비디오이다. 비디오에서는 밴드 맴버 중 한 맴버의 뺨에 다윗의 별이 그려졌다

(그림 9). 별이 특별한 뜻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즉, "근사해 보이려고 한 것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Tvtropes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는 모욕적인 것이다. 소녀들이 북미 원주민의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비디오는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다윗의 별을 사용한 것은 위에 설명한 두 경우와 다르다. 그것은 사탄과 관련한 의미나 초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재산, 돈, 권력과 관계가 없다. 대신에, 다윗의 별은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림 9> 티아라 밴드의 <Yayaya>라는 뮤직 비디오. "근사해 보이려고 한 것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다".[9]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적으로 페티시화되지 않는다. David L. Eng 은 '인종적인 거세'와 '뒤바뀐 페티시즘'이라는 과정, 즉, 아시아 남성이 서구에서 여성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적한다.

[9]<그림 9> Youtube. T-ARA (티아라) 밴드의 <yayaya (야야야)>라는 뮤직 비디오. Accessed July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sLfRdyqxXJk.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식민지 체제가 차별주의적이고 이성애을 가진 구조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Eng 은 아시아 남성을 거세하는 것은 "평가 절하된 아시아 인종의 위치에 관하여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을 함께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백인 권력 구조와 이성애에 대해 뚜렷한 심리적인 과정을 예로 든다"고 말한다 (Eng, 2001: 152). 아시아의 남성과 유사하게, 그리고 백인 미국인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에 대한 '과잉웅성화'와는 반대로,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여성스럽게 만들었다. Pinar 에 의하면 "유대인은 별개의 인종으로 상상되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윤리적으로 사악한, 문화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Pinar, 2006: xi).

결론적으로는 성적으로 페티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페티시화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신비, 초능력, 돈, 성공과 관련된다.

이 장에서 필자는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사회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유입된 것과 관련하여 몇 개의 가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에서 페티시화되는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제공했다.

제3장 '유대인의 교육'

제1절 도입부 -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에 관한 성경 해석학

기독교가 한국에 확산되면 될수록 구약의 이야기도 확산되었다. 자신의 역사가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구약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국의 국가 정체성 구축을 위해 이용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세 가지 성경 이야기가 이용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이야기, 에스더서 이야기 그리고 바빌론으로 추방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국가를 건설한 것과 권련된 이야기이다 (Lewis, 1994: 2-3).

일제 하에서 살던 한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이야기는 정치적인 의미로 가득했다. 그 이야기가 노예 제도와 억압을 종료하는 예로서 이해되었다. 또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본의 통제에서 한국인들을 구해낼 것이고 노예가 된 한국인들이 원래의 신의 의도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억압된 현재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국인들은 일본의 통제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Wells, 1990: 39, 88-89, 96-97; Lewis, 1994: 2-3; Chang, 2006; 207).

한국 개신교 교회는 독립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국가의 소멸로 간주한, 한일합방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성경을 참조한 또 다른 예는 멸망에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애원했던 에스더 왕비이다. 한국인들은 이 이야기를 한국인을 위한 애원으로 설명했고 성경에서 나온 아하수에로 왕을 일본의 천황과 동일시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이 시온에 귀향했을 때 (기원전 6 세기와 5 세기) 그들을 이끈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두 지도자를 민족주의 재건의 모델로 간주하였다 (Wells, 1990: 97; Lewis, 1994: 2-3).

오늘날에도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한국인들을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Wells, 1990: 176). Song 은 구약 성서를 믿는 것이 유대인들과 한국 기독교인의 공유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국가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Song, 2014). 이러한 가정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모방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욕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신문 사설과 칼럼

많은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우월성'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 절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된 사설과 칼럼들에서 '유대인의 교육'이나 '똑똑한 유대인'과 같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흔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들 중 주요 검색어인 '유대인 + 교육', '유태인 + 교육', '유대인 + 탈무드', '유태인 + 탈무드'를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16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교육' 9 개, '유태인 + 교육' 5 개, '유대인 + 탈무드' 1 개, '유태인 + 탈무드' 1 개). 그리고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하면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같은 수인 16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교육' 14 개, '유태인 + 교육' 0 개, '유대인 + 탈무드' 2 개, '유태인 +

탈무드' 0 개). 다음 부분에서는 그 두 신문에서 발표된 사설과 칼럼의 주요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2015 년 6 월 12 일에 오태진 기자는 '[만물상] '일등病'이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부록으로 첨부된 목록에서 1 번호로 지정된다). 오태진은 한국인들의 '일등病'이나 '일류병(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 일등을 하고 싶어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대인들에게 패배나 실패가 좌절일 수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왜 그는 한국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국 사회 내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유대인을 언급했는가? 이는 기자가 특별한 점들을 지닌 '유대인 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비슷하게 2014 년 11 월 5 일에 전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자신이 쓴 '[발언대] 漢字 지식이 科學·창의력 이끈다'라는 칼럼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수를 비교하면서 유대인의 교육법을 언급하였다 (4 번). 그는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 '유대인의

교육'을 모범적 사례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전광진은 어딘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었다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 "유대인 어머니처럼 아이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북돋워줘야 한다" ("[발언대] 漢字 지식이 科學·창의력 이끈다". 전광진, 『조선일보』, 2014 년 11 월 5 일).

2015 년 1 월 21 일에 박국희 기자는 '[기자의 시각] 파업하는 유대인 高校生들'이라는 칼럼를 발표하였다 (3 번). 기자에 의하면 유대인식의 교육 방법은 청소년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키운다.

> "학교에 갔다 온 자녀에게 "오늘은 뭘 배웠느냐"고 하지 않고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묻는다는 유대인 부모의 교육 방식은 널리 회자된다. 이스라엘의 척박한 환경이 학생들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키웠을 수도 있다" ("[기자의 시각] 파업하는 유대인 高校生들". 박국희, 『조선일보』, 2015 년 1 월 21 일).

그 칼럼에서 세월호 침몰도 다뤄지는데 아래와 같이 야코브 코헨 히브리대 동아시아학부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과거 한국과 일본 주재 대사를 지냈던 야코브 코헨 히브리대 동아시아학부 교수는 "유대인 학생들이었다면 배에 남아 있으라는 방송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 각자가 제 살길을 찾아 진작에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시각] 파업하는 유대인 高校生들". 박국희, 『조선일보』, 2015 년 1 월 21 일).

필자는 자라면서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번도 못들었다. 따라서 박국희의 설명은 '유대인의 교육'을 이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장에는 동의한다.

민현식은 2013 년 12 월 19 일에 '[기고] '동방無禮지국' 안 되려면'이라는 칼럼에서 유대인의 교육법은 경탄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번). 그에 따르면 유대 부모들은 '하브루타' (말 그대로 우정이나 동료애의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경전을 분석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공부법이다) 공부법을 적용함으로써 자녀의 토론 문화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유대인의 가족 대화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

"유대인이 노벨상 30%를 휩쓰는 이유는 유대 민족 특유의 신앙적 대화를 비롯해 각종 시사 문제까지도 진지하게 토론하는 '하브루타' 덕분이다. 유대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질문하였느냐고 묻는다. 가족 토론 문화가 학교 토론 문화로 이어지고, 고교 졸업 후에는 군대에서 전략 토론 문화로 이어져 군대 동료가 평생 동료가 된다. 젊은이들은 제대 후 창업이 기본이라고 한다. 이런 창조적 토론 문화가 이스라엘 창조 경제의 토대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대화·토론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동방無禮지국' 안 되려면". 민현식, 『조선일보』, 2013 년 12 월 19 일).

이와 마찬가지로 2014 년 7 월 2 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 이병권의 쓴 '[기고] 화학적 統合 이뤄야 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라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31 번 칼럼). 이 칼럼은 유대인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비결을 설명하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토론 문화'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토론 문화가 유대인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의해 새로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본다.

2013 년 10 월 3 일에 현용수는 '[발언대]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의 허와 실'이라는 칼럼를 게재했다 (8 번). 그는 유대인의 생존 비결을 설명했고 그 비결은 바로 유대인이 자녀에게 유대 문화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육성하는 교육법이다. 그는 유대인처럼 한국인도 자녀의 기본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 년 6 월 26 일에 양상훈은 '6 월에 생각하는 '철이 든 나라''라는 칼럼를 게재하였다 (12 번). 그는 1983 년 10 월 9 일에 미얀마 양곤에 발생한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기억을 살펴보았다 젊은 세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인과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나치 유대인 수용소 견학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든다.

> "… 우리와 정반대인 것이 유태인 교육이다".
>
> "이스라엘 학생 대부분이 고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를 방문한다고 한다. 관광객이 아닌 유태인 학생들에겐 온몸이 떨리는 공포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다" ("[양상훈 칼럼] 6 월에 생각하는 '철이 든 나라'". 양상훈, 『조선일보』, 2014 년 6 월 26 일).

양상훈은 한국인의 교육법이 바뀌지 않으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서해훼리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5 년 안에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4 년 3 월 25 일에 무갑식 기자는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라는 칼럼를 게재하였다 (14 번). 칼럼에서 그는 유대인을 창의적으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탈무드'와 '토라'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라고 분석한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은과 같이 설명한다.

> "역대 노벨상 수상자 813 명 가운데 165 명을 배출한 민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수의 20%를 차지하는 민족, 미국 100 대 부호(富豪)의 20%를 가진 민족, 바로 유태인이다. 유태인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든 원동력은 뭘까. 유태인의 경험이 축약된 '탈무드'와 모세 5 경인 '토라'다".
>
> "그렇다면 창조국가, 창조경제는 신(神)이 만든다는 말인가? 김우식이 말했다. "탈무드와 토라는 수단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베갯머리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베갯머리 교육은 아이들을 재울 때 등을 살살 긁어주며 선조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은 자연스레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소통(疏通)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막고 호통치지 않는 것이다"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조선일보』, 2014 년 3 월 25 일).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한겨레』에서 발표된 사설이나 칼럼 중 주요 검색어인 '유대인 + 교육', '유태인 + 교육', '유대인 + 탈무드', '유태인 + 탈무드'를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해 보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 분석기간에 게재된 기사의 16 개 중 기사의 6 개가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이라는 6 장의 주제에 가까워서 6 장에서 언급되고 기사 2 개는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분쟁'이라는 5 장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들의 내용은 '유대인 교육'이나 다른 주제와 관계가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3절 이스라엘 국가에서 배우다

어린이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심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한국인들이 유대인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한

유일한 측면은 아니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1970 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경 사회를 발달시킨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Kibbutz*. pl. *Kibbutzim*) 성공적인 모델로 삼았다. 키부츠는 20 세기 초부터 이스라엘에서 수립된 농업에 근거한 대동 사회였다. 새마을 운동은 사회주의와 시온주의를 바탕으로 그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한국의 시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로 들었다 (이기우 · 권영주 · 기영화 · 이단비, 2013: 39-44). '새마을 운동'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류태영은 이스라엘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방식에 대한 모방이 유대교의 종교와 전통에 뿌리를 둔 학습과 교육 방법의 모방을 넘어선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키부츠는 종교적인 학습과 상관이 없으며 실제로 이스라엘의 세속주의적인 상징이 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종교적인 관계가 없어도 '유대인'으로 간주된 모든 것에 대해 동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류태영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 많은 글을 썼지만 (류태영, 1996b; 2001) 이스라엘의 세속주의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류태영, 1996a; 2006).

제4절 논의

<표 1>은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사설이나 칼럼의 주요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1> 주요 주장 별로 나눈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주요 주장	주장에 동의하는 『조선일보』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주장에 동의하는 『한겨레』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1	•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특징으로 가득하다. • **유대인 교육의 방법은 이상적으로 설명된다.**	1 번, 3 번, 4 번, 7 번, 8 번, 12 번, 31 번	-
2	유대인의 창의적으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탈무드'와 '토라'이다.	14 번	-
3	한국 사회에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 번, 3 번, 4 번, 7 번, 8 번, 12 번, 31 번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하고 검색어를 포함하는 사설과 칼럼을 분석해본 결과, 제일 두드러진 것은 바로 『한겨레』에서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에 비하면 『한겨레』가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선일보』에서 '유대인의 교육'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16 개 기사 중 7 개가 유대인의 교육법은 신기하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교육 방법을 이상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기사는 한국 사회에도 그런 교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한 칼럼은 '유대인의 교육'이 뛰어난 이유를 찾으면서 종교적인 문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 학자에 의하면 '유대인의 교육'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유대 경전이 중심이다. 둘째, 유대 부모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관심이다. 셋째, 토론 문화는 유대인의 창의력을 키우는 힘이다. 『조선일보』에 발표된 기사의 내용은 그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한다. 이와 다르게 『한겨레』는 '유대인의 교육'을 이상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념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다. 즉,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찬양하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제4장 '유대인의 힘'

제1절 도입부

이 장에서는 한국 미디어에 부자이고 강력한 유대인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한국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의 힘'이라는 표현은, 세계 정치, 미디어, 월스트리트와 할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관련한 음모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분석기간을 정하고 주요 검색어를 정의한 후, 검색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하면서 그러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서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신문 사설과 칼럼

이 절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부유하고 강력한 유대인'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흔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들 중 주요 검색어인 '유대인 + 돈', '유태인 + 돈', 유대인

+ 파워', '유태인 + 파워', '유대인 + 힘', '유태인 + 힘', '유대인 + 권력', '유태인 + 권력', '유대인 + 세력', '유태인 + 세력', '유대인 + 지배', '유태인 + 지배', '유대인 + 장악', '유태인 + 장악', '유대인 + 통제', '유태인 + 통제'를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58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돈' 8 개, '유태인 + 돈' 3 개, 유대인 + 파워' 1 개, '유태인 + 파워' 1 개, '유대인 + 힘' 12 개, '유태인 + 힘' 5 개, '유대인 + 권력' 2 개, '유태인 + 권력' 3 개, '유대인 + 세력' 5 개, '유태인 + 세력' 3 개, '유대인 + 지배' 8 개, '유태인 + 지배' 1 개, '유대인 + 장악' 2 개, '유태인 + 장악' 1 개, '유대인 + 통제' 0 개, '유태인 + 통제' 3 개). 그리고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하면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61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돈' 10 개, '유태인 + 돈' 0 개, 유대인 + 파워' 1 개, '유태인 + 파워' 0 개, '유대인 + 힘' 10 개, '유태인 + 힘' 0 개, '유대인 + 권력' 13 개, '유태인 + 권력' 0 개, '유대인 + 세력' 13 개, '유태인 + 세력' 0 개, '유대인 + 지배' 12 개, '유태인 + 지배' 0 개, '유대인 + 장악' 1 개, '유태인 + 장악' 0 개, '유대인 + 통제' 1 개, '유태인 + 통제' 0

개). 다음 절에서는 그 두 신문에서 발표된 기사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2014 년 7 월 26 일에 김기훈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에 대해 '[데스크에서] 폭탄주 vs 마오타이 알잔'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19 번). 한·중 양국 강의 사업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는 한국인이 들려준 일화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한 재미 교포 사업가는 "중국산 수입품에 흠이 생겨 계약서대로 현금 배상을 청구했더니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계약서와 행동이 다르니 중국 상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도 두 손을 든다"고 했다" ("[데스크에서] 폭탄주 vs 마오타이 알잔". 김기훈, 『조선일보』, 2014 년 7 월 26 일).

여기에서는 한국인이 유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목할 만하다. 그 사업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한다. 기자가 이 주장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업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유대인을 한번도 못 만났던 한국인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2014 년 4 월 10 일에 셰익스피어 탄생 450 주년을 기념하여 안경환은 '[朝鮮칼럼 The Column] 샤일록을 위한 辯論'이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20 번).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에 대해 설명하고 그는 "베니스 땅에서 샤일록은 외국인, 소수 종교인, 소수 인종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탈북자들도 샤일록과 같은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이 2 등이나 3 등 국민으로 전락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2014 년 2 월 8 일에『조선일보』는 '東海 병기 · 위안부 만화전서 日 이겨낸 민간의 힘'이라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32 번). 사설의 내용은 미국 비지니아 주에 통과된 '동해 병기 법안'이다. 그것은 비지니아 주에 사는 한국 교민의 노력으로 교과서에 '일본해'로만 표기하던 것을 '일본해/동해'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또한, 사설은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적 만화 전시회에서 위안부 만화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인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IPAC –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라는 단체를 언급했다. 사설의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유대인 단체다. AIPAC 행사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하원 지도부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 단체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와 위안부 만화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역량(力量)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東海 병기·위안부 만화전서 日 이겨낸 민간의 힘". 사설, 『조선일보』, 2014년 2월 8일).

사설은 미국 유대인들의 'AIPAC' 단체가 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그와 같은 유대인 단체를 강하고 성공한 조직의 예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인들이 유대인을 뒤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기사들을 또 다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부유한 사람이나 성공적인 사업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지닌 유대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기사이다. "누구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그러한 뜻을 암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2015 년 4 월 22 일에 오윤희 기자는 '[기자의 시각] '새로운 貴族'의 탄생'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2 번). 기자는 '신(新)귀족'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스마트폰 메신저 앱 '왓츠앱'의 개발업자 얀 쿰 (Jan Koum)을 언급했을 때 그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4 년 5 월 21 일에 좌승희 KDI 교수는 '[기고] 한반도 벗어나 '韓民族 세계 국가' 준비하자'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13 번). 한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비교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 "한민족 이민자들이 지난 세기에 이룩한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생각해보라. 유태인 못지않게 영특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세계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기고] 한반도 벗어나 '韓民族 세계 국가' 준비하자". 좌승희, 『조선일보』, 2014 년 5 월 21 일).

좌승희가 한국인들이 세계를 경영하지 못하는 이유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유대인에 비유하는 것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글의 흐름에서 유대인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부유하고 경제적 영향력이 있다는 추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2015 년 1 월 29 일에 홍세화는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98 번). 그는 프랑스 파리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와 유대인 식료품 가게에 대한 테러 사건 후 모두가 '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외친 것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슬람교도인들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이다. 칼럼에서 나온 단락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가령 샤를리 에브도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 영국 지식인 길라드 아츠몬은 “시온주의 전쟁을 지지한 네오콘, 친유대 잡지로서 소수자와 특히 이슬람을 타자화하는 데 헌신해왔고 그동안 유대인들의 권력이나 미국이라는 전쟁 기계에 대한 비판에는 침묵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는 심지어 샤를리 에브도를 가리켜 “파리에 파견된

이스라엘의 문화담당관처럼 행동해왔다”고, 프랑스 지식인들이 감히 꺼내지 못할 말을 거침없이 꺼냈다. 실제로 프랑스 지식인들은 유대인 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다시 빌려 말하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대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정치적 올바름’이 강제하는 ‘자기 검열’ 때문일 것이다"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 홍세화, 『한겨레』, 2015 년 1 월 29 일).

길라드 아츠몬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권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반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2015 년 5 월 3 일에 최우성은 '[유레카] 몬주익'이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96 번). 은행이란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은행이 이자 수익으로 버는 자본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서양에서 유대인들이 금기시되던 대금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의 은행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수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제3절 논의

<표 2>는 '유대인의 힘'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사설이나 칼럼의 주요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2> 주요 주장 별로 나눈 '유대인의 힘'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주요 주장	주장에 동의하는 『조선일보』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주장에 동의하는 『한겨레』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1	유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다.	19 번	-
2	• 미국 유대인 단체나 조직은 영향력이 높다. • '유대인의 권력'은 너무 막강하다.	32 번	98 번
3	한국인도 유대인처럼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32 번	-
4	유대인이 금융업으로 돈을 번 것과 같은 역사적인 사태를 언급한다.	-	96 번
5	다른 주제를 다루다가 유대인의 위치나 경제적 영향력을 언급한다.	13 번	-
6	부유한 사람이나 성공적인 사업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지닌 유대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기사.	2 번	-

7	유대인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의 여러 문제를 비난하는 기사.	20 번	-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게재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두 신문은 '유대인의 힘'과 관련된 주장을 별로 다루지 않는다. 분석한 기사 중 『조선일보』에서 유대인들이 위대한 권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4 개가 발견된다. 『한겨레』에서 발표된 기사 중 그러한 주제를 다룬 기사는 2 개밖에 안 된다.

제5장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분쟁

제1절 도입부 -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혼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둘러싼 수사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때때로 많은 유대인이나 유대교 조직이 반유대주의로 명명된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 앞에서 침묵하고 이스라엘만 비난한다고 주장한다. Kaplan 과 Small 은 유럽에서, "반이스라엘 정서에 따라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바뀌고 반이스라엘과 관련 감정이 증가하면 할수록 반유대주의의 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주장하였다 (Kaplan and Small, 2006: 548).

사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두 반유대주의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정책의 근거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편견의 근거로 이스라엘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다 (Kaplan and Small, 2006: 560).

시온주의, 이스라엘, 유대인 용어는 미디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Schwarz, 1986: 316). 그 이유는 다양하고 이러한 용어가 혼용되는 현상은 친이스라엘이나 반이스라엘로 부터 나오며 완전한 무식, 게으름에서 발생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섬세하고 복잡한 관계는 그 세 가지 용어 호환성에 기여한다. 때때로, 근대국가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을 대변할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등함을 암시하고 그들을 부족하거나 부적당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Shneer and Aviv, 2010).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구별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2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희생 양으로 만드는 과정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모호하게 구별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발생된 일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인기를 얻게 된다. 이스라엘로 부터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국내에서 규모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일본 저자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하는 Richard Koshimizu (リチャードコシミズ)는 사악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경제와 매스미디어를 장악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쓰나미, 9·11 테러 공격,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 모두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과 관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he Telegraph*, 2014.12.8).

음모론은 2014 년에 사라진 말레이시아 비행기, 같은 해에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말레이시아 비행기 사고, 1994 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상호 협회 건물 폭탄테러 사건, 2014 년에 터키에서 301 명 광부의 죽음, 샤름엘셰이크에서 2010 년에 상어 공격,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Veterans Today*, 2014.4.26; *GlobalResearch*, 2014.7.21; *The Tower*, 2015.1.5; *Haaretz*, 2014.5.21; *BBC News*, 2010.12.7). 이러한 모든 음모론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유대교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 세계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악행을 저지르는 네트워크가 이스라엘로 자꾸 표시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의 발생된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이 비난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음모론은 2010 년 3 월 26 일에 발생한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 음모론에 따르면 천안함은 이스라엘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었고 46 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공식적인 소식통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 때문에 침몰되었지만 음모론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그 사건은 한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급비밀의 군사 훈련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천안함에 부딪쳤고 배가 침몰한 사건이다. 충돌 때문에 잠수함도 가라앉았고 34 명의 이스라엘 선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이후에 잠수함은 수리를 위해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졌고 죽은 이스라엘 선원의 시체가 미국 메릴랜드 주의 Chambers 이라는 장례식장에서 화장되었다는 것이다 [!]. 이 음모는 한겨레 블로그 웹사이트에서도 여러 뉴스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겨레 블로그』, 2011.2.17; 2014.2.10). 이는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재미있었을 수도 있었다.

또 다른 블로그 항목에서는 천안함과 유대인을 결합한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분단된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된다. 미국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언급되었다 (『다음 블로그』, 2010.7.9). 다시 유대인들이 전능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된 비극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되었다.

두드러진 유사한 방식으로 2014 년 4 월 16 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다룰 때 미국이나 이스라엘 잠수함에 책임이 있다는 한국인도 있었다. 또 다른 음모론에 따르면, 세월호는 이스라엘 조선소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돌핀급' 잠수함 중 하나에 부딪쳤기 때문에 침몰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 '가능한 상황을 예상한 경우'를 숨기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된다 (『미디어펜』, 2015.4.20; *The 4th Media*, 2015.6.18). 음모에 이스라엘을 끼워넣는 것은 그 음모론에 더 많은 신뢰를 주었고 더 완벽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같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지성수 목사는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기꺼이 선언하였다. 여러 웹사이트 중 한겨레 블로그 웹사이트에서도 게재된 '이스라엘과 세월호'라는 글에서 그는 서구에서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선언하면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만 그는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때 자신이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감탄해서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에서 반유대주의자가 되기 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다고 한다. 즉, 그것은 노예 제도에서 해방으로의 과정이 아니었고 땅에 대한 탐욕이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도발적인 글의 제목으로써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 (둘 다 그때나 지금이나)과 현재 한국 지도부 사이에 유사점을 찾는다.

왜냐하면 둘 모두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블로그』, 2015.4.22).

출애굽기의 일반적인 해석과 지성수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제 3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출애굽기의 서사를 해방과 자치를 희망하게 되는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약 성서 연구원 김원일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서사의 핵심이 아니고 정복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것이 서사의 핵심이다. 그 땅을 정복하는 중에 (하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같은) 몇몇 민족이 해방된 사람에 의해 억압되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것은 문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집트에서 받던 억압과 이집트에서 탈출한 서사가 언급되었다고 강조한다. 출애굽기의 서사와 관련한 더 인기가 많은 해석은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행위가 친절한 하나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im, 2006). 지성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에 대한 그러한 재평가를 이용한다. 지성수 목사가 반유대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은 반이스라엘 성향에서 반유대주의로 바뀐 것의 명확한 예이다.

제2절 신문 사설과 칼럼

이 절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의 기자들이 두 국가 중 한 편을 지지하는 경우의 가능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게재된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장의 주제로 인하여 분석기간을 위와 같이 정했다. 2014 년 7 월 8 일에 이스라엘·가자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해 8 월 26 일에 정전으로 끝났다) 전쟁 전후의 일 년으로 기간을 정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들 중 주요 검색어인 '유대인 + 이스라엘'과 '유태인 +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기간과 주요 검색어에 맞는 기사는 27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이스라엘' 22 개, '유태인 + 이스라엘' 5 개). 반면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13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이스라엘' 13 개, '유태인 + 이스라엘' 0 개). 이

장에서는 그 두 신문에서 발표된 기사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2014 년 10 월 4 일에 이스라엘 특파원 박국희 기자는 '[기자의 시각] 되살아난 反유대주의'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56 번). 이것은 유럽에서 확산된 반유대주의에 대한 것이다. 그는 그해 7 월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유럽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적인 사건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반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는 비슷한 것이다. 박국희는 그러한 현상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스라엘·가자 전쟁이 한창일 때인 2014 년 8 월 6 일에 국립외교원 교수 인남식은 '[시론] 가자(Gaza) 유혈 사태 부른 이·팔 강경파'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39 번). 인남식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맹폭을 지속한 이유를 찾고 결국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즉,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 공습을 통해 국내 여론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인 서안 지구에서 일어난 유대인 3 명의

소년 납치 살해 사건 (그해 6 월 12 일에 납치되고 처형되었다. 그들의 시체가 6 월 30 일에 발견되었다)에 대한 보복을 실행하기 위해 공습을 시작하였다. 인남식에 따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면전을 이끈 것은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가자 공습 이후 네타냐후 정부 지지도는 급등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궤멸시키자는 강경 여론도 높아졌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정비하고 연립정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론] 가자(Gaza) 유혈 사태 부른 이·팔 강경파". 인남식, 『조선일보』, 2014 년 8 월 6 일).

2014 년 8 월 27 일에 '이스라엘 '무차별 아랍人 증오'… 해외 유대인 "新나치 행태"'라는 사설이 발표되었다 (57 번). 사설의 주요 주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인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스스로 인종차별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보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익'이라는 딱지가 자기한테 붙을까봐 팔레스타인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정치 지도자들 앞에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2014 년 7 월 31 일에 박국희는 '[기자의 시각] 히틀러도 어린이였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58 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의 아랍인에게 느끼는 증오를 서술하고 이스라엘 일간지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지적했다. 그것에 따르면 전국 유대인 성인들을 상대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가자 지구 공격을 찬성했다.

2013 년 9 월 4 일에 박두식은 '시리아 사태, 미국 退潮의 시작인가'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34 번).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시리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전쟁을 논의하는 것이다. 박두식은 시리아 정권이 비무장 민간인을 화학무기로 공격한 후 이스라엘이 전세계의 무력 제재를 요구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2014 년 10 월 일에 김의겸 '[아침 햇발] 이스라엘·쿠바 그리고 사드'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121 번). 그는 미국이 한국에 들여올 '사드'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스라엘·가자 전쟁에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요격용 탄도 미사일이 떠올렸다. 그는 이 요격 시스템을 '악마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까삼 로켓을 쏴봐야 모조리 다 요격해주니, 걱정 없이 질펀하게 살육을 즐긴 것이다. 그러니 아이언 돔은 결코 방어용이 아니다. 아무리 화력이 앞서더라도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토록 무자비하게 쏘아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이언 돔은 두려움을 제거해줬다. 시작은 방어용이었겠으나 그 끝은 지독한 공격용으로 바뀐 것이다" ("[아침 햇발] 이스라엘·쿠바 그리고 사드". 김의겸, 『한겨레』, 2014 년 10 월 7 일).

즉, '아이언 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도덕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2014 년 8 월 7 일에 고명섭은 '[아침 햇발] 스피노자, 가자, 예언자'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93 번). 칼럼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강한 증오심을 느낀다. 둘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학살하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은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

> "… 나치 독일이 바로 그런 범죄형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원수를 닮아가고 있다" ("[아침 햇발] 스피노자, 가자, 예언자". 고명섭, 『한겨레』, 2014 년 8 월 7 일).

그 이틀 전인 5 일에 소련에서 태어난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박노자 (朴露子)는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을 넘어!'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82 번). 이스라엘·가자 전쟁을 서술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비판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도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두 사회를 군사적인 사회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이웃 나라의 주민들을 열등시하거나 악마로 간주하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내에 아랍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분위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나라 사랑 교육' 때문에 북한을 악마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박노자에 의하면 북한을 악마로 취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를 악마로 취급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다.

<그림 10> 이스라엘과 한국이 닮아간다고 주장하는 박노자의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을 넘어!'라는 칼럼 (82 번)에서 나온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10]

이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 "… 하마스의 힘의 근원이 종교적 광신보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음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할 의도도 그럴 만한 역량도 없음에도, 대다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마스는 박멸해야 할 '테러조직'일 뿐이다"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을 넘어!". 박노자, 『한겨레』, 2014 년 8 월 5 일).

여기에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다. 아마 박노자는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10] <그림 10>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을 넘어!". 박노자, 『한겨레』, 2014년 8월 5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9923.html.

생활방식, 정절을 지키거나 성적인 허용을 막기 위해 수영장과 놀이공원을 태우는 조치, 이스라엘과 '협력자'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정책, 등을 하마스의 위대한 '복지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4 년 8 월 6 일에 박민희는 '[편집국에서] 남 일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122 번). 이 칼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살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은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8 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탄을 퍼붓는 동안 '스데로트 극장'에선 환호가 이어졌다. 가자지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도시 스데로트의 언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를 흔들며, 맥주를 마시며,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불꽃놀이'를 구경한 것이다".
>
> "그 불꽃 아래선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온몸이 찢기고 불타고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는 사람들, 검게 불탄 채 곳곳에 흩어진 팔과 다리들, 놀이터에서 놀다가 폭탄을 맞고 죽어간 아이들이 흘린 피 웅덩이 위에 남은

> 장난감, 유엔 대피소와 병원까지 날아든 폭탄에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약 1900 명이 숨졌다".
>
> "가자지구의 비극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학살을 겪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폭력을 약자에게 퍼부을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자를 짓밟으려는 강자들의 편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나치가 될 수 있고, 어느 사회나 스데로트 극장이 될 수 있다" ("[편집국에서] 남 일이 아니다!". 박민희, 『한겨레』, 2014 년 8 월 6 일).

2014 년 7 월 30 일에 김어진은 '[왜냐면] '가자의 절규' 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118 번). 그는 전쟁에 대해 서술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 "한국 정부와 국내 일부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묵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점령 사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왜냐면] '가자의 절규' 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김어진, 『한겨레』, 2014 년 7 월 30 일).

즉, 김어진은 한국이 'BDS'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보이콧· 투자철회·제재)라는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13 년 9 월 4 일에 이라영은 '[야! 한국사회] 불온한 '전라도의 힘'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109 번). 이라영은 전라도의 주민들이 당하던 박해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아무도 나치와 유대인의 '갈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박해였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박해는 종종 '분쟁'으로 바라본다. 차별과 박해, 그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시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등'이나 '분쟁'으로 둔갑한다. 한국 사회에 지역감정이나 갈등은 없다. 지역 차별이 있을 뿐이다" ("[야! 한국사회] 불온한 '전라도의 힘'". 이라영, 『한겨레』, 2013 년 9 월 4 일).

이처럼 이라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등한 입장이 아니라 억압하는 편과 억압당하는 편으로 명확하게 나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박해"와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제3절 논의

<표 3>은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분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사설이나 칼럼의 주요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3> 주요 주장 별로 나눈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주요 주장	주장에 동의하는 『조선일보』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주장에 동의하는 『한겨레』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1	•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인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증오한다. • 유대인들은 '인종적 잔혹성'을 표출한다. •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해 한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나 '분쟁'이라기 보다는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57 번, 58 번	82 번, 93 번, 109 번, 121 번, 122 번
2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도살·살육·살해'하고	-	82 번, 93 번, 118 번, 121 번, 122 번

	있다.		
3	이스라엘은 나치를 닮아간다.	-	93 번, 109 번, 122 번
4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은 'BDS'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	118 번
5	이스라엘·가자 전쟁은 이스라엘 정부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조치이다.	39 번	-
6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다.	-	82 번, 121 번
7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세계적인 반유대주의적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56 번	-
8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의 무력 제재를 요청한다.	34 번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하고 검색어를 포함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한겨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도살·살육·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는다. 둘째, 『한겨레』의 기사 중 이스라엘이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3 개 발견되었는데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그러한 주장이 없다.

『한겨레』는 『조선일보』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제6장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

제1절 도입부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과거사에 대해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매우 다르게 인정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주로 독일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동안 600 만 유대인들을 학살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일본은 20 세기 전반 동안 한반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저지른 잔학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의 과거사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민족이 겪은 비극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것을 전제한다. 비극의 규모를 비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필자의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삼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는 잔학 행위, 살인과 학살의 잔인성의 수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희생자의 수, 문제되는 정권이나 전쟁의 기간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집단 학살의 위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Sturdy Colls, 2012: 82-83).[11] 하지만 이

[11] 국제 인도주의 법과 관하여 '범죄의 위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예를

연구에서는 '집단 학살의 위계'나 '희생의 넓이'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

제2절 신문 사설과 칼럼

이 절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나치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당한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과거사 인정을 받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들 중 주요 검색어인 '유대인 + 독일 + 일본'과 '유태인 + 독일 + 일본'을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24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독일 + 일본' 19 개, '유태인 + 독일 + 일본' 5 개). 반면 『한겨레』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기준에 맞는 기사는 9 개로 나타났다 ('유대인 + 독일 + 일본' 9 개, '유태인 + 독일 + 일본' 0 개). 다음 부분에서는 그 두 신문에서 발표된 기사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면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 (ICTR)는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 등 등급으로 만들어진 '위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 (ICTY)는 이 '위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

기자들의 대부분은 일본과 독일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책임을 갖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독일과 다르게 일본은 아직 자국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을 억압했던 역사적 사실에 진정으로 대면하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조선일보』의 '사설·칼럼' 섹션에서 '유대인 + 독일 + 일본'이나 '유태인 + 독일 + 일본', 이러한 주요 검색어를 포함하는 24 개의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관계가 없는 기사를 6 개 발견하였다. 나머지 18 개의 기사들의 내용은 다음 네 가지 주장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이 주장에 동의한다. 그 네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독일과 일본은 과거에 타민족을 억압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 관련하여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다.

2) 만약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 국가가 되고 싶으면 독일의 자기반성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3) 일본 지도자들은 위선적이다. 그들은 세계 2 차대전 때 동맹국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를 인정하지만 자국이 과거에 억압한 역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의

총리 신조 아베 (安倍 晋三)는 워싱턴과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지만 동시에 억압의 상징으로 알려진 야스쿠니 신사 (靖國神社)도 참배하였다.

4) 한국인들은 과거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5 년 5 월 21 일에 김기철 기자는 일본이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 23 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보도하였다 (67 번). 그는 일본과 독일이 근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들을 이용하였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강제 노동으로 동원하는 것을 반성했고 유대인들의 강제 노동 사실이 박물관에서도 전시된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 징용자들이 강제로 동원하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지 않는다. 김기철은 일본이 메이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자국의 과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 년 4 월 30 에 오태진 기자는 자신이 쓴 칼럼에서 일본의 총리 아베가 위선적이라고 평가하였다 (68 번). 왜냐하면 그해 1 월에 예루살렘과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2 차대전에 유대인들을 구했던 카우나스 주재 일본 외교관 스기하라 지우네 (杉原 千畝)를 칭찬했고 그의 행위를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아베 총리는 조선인 과거사를 반성할 기미가 한 점도 없다. 이 칼럼와 비슷한 사설이 2013 년 7 월 31 일에 게재되었다 (38 번).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麻生太郎) 부총리의 발언이나 야스큐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비판했고 일본의 극우 지도자들을 위선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015 년 1 월 21 일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 '아베 홀로코스트 추모가 쇼로 비치는 까닭'이라는 사설은 발표되었다 (44 번). 그 사설은 아베가 전쟁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위안부 생존자들과 강제 징용 피해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추모관을 방문해서 인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한 행위가 너무 위선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4 년 4 월 17 일에 노석조 기자는 '[기자의 시각] 國家의 배짱'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54 번). 그는 20 여년 전에 일어난 추문을 서술했다. 그것은 동유럽 정상 (頂上)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홀로코스트 추모관 방문을 거부했는데 이스라엘이 방문을 고집했고 결국 방문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노석조는 한국도 그러한 '배짱 외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2015 년 3 월 10 일에 발표된 사설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일본 방문에 대해 보도했다 (69 번). 사설은 메르켈 총리의 말을 인용하였다.

> "(2 차 대전 후) 유럽에서 화해가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과거와 똑바로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틀 방문 일정으로 이날 일본에 도착했다. 메르켈 총리는 강연 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2 차 대전 후 연합국이 주도한 뉘른베르크 전범(戰犯) 재판을 통해 과거를 극복하는 것을 확실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다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은 행운이었다"며 "(침략을 당한) 프랑스의 관용과 (침략한) 독일의 진정한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사설] 일본서 "독일은 역사와 똑바로 마주했다"고 한 메르켈 총리". 사설, 『조선일보』, 2015 년 3 월 10 일).

사설은 메르켈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곳이 아닌 일본 내에서 발언했기 때문이다. 사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경우도 언급하였다.

2015 년 2 월 2 일에 『조선일보』의 이스라엘 특파원 박국희는 아베 총리가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한 것을 '과거사 물타기 쇼'로 묘사하였다 (55 번).

2014 년 11 월 18 일에 박국희 기자는 독일·이스라엘 수교 50 주년에 대해 설명하면서 1952 년에 조인된 '룩셈부르크 협정' (또한 '배상금 협정'으로 알려진 협정이다)을 언급했다 (46 번).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 생존자들이 독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약 25 조~30 조원 (213 억~256 억 달러)이다.

2014 년 7 월 1 일에 박국희는 '위안부 歷史館 없는 한국'이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그 칼럼은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유대인 조직 '사이몬 비젠탈 센터'의 예루살렘 지사장 에프라임 주로프 (Efraim Zurroff, '마지막 나치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위안부 역사관이 없는 사실을 비난하고 (59 번) 주로프의 말을 아래와 같이 옮겼다.

> "서울의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하나 설치돼 있다" ("[기자의 시각] 위안부 歷史館 없는 한국". 박국희, 『조선일보』, 2014 년 7 월 1 일).

박국희 기자는 '야드 바셈' (Yad Vashem)이라는 홀로코스트 (유대일 대학살) 기념관은 필수 명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국빈 (國賓)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그곳을 꼭 방문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014 년 12 월 11 일에 김기철 기자는 '야드 바셈' 주제를 다루는 칼럼을 게재했다 (43 번). 그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경탄할 만한 경험을 서술하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기억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인 우리가 제대로 가해자들의 행적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게으르면서 가해자들이 알아서 반성해주길 기대할 수는 없다. 징용이든 징병이든 위안부 문제든 우리 주변의 가해자와 희생자들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기억의 전쟁'에서 판판이 허둥댈 수밖에 없다. 희생자와 가해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역사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야드 바셈은 보여주고 있다" ("[김기철의 동서남북] 야드 바셈에서 배운

歷史戰爭(역사전쟁) 승리법". 김기철, 『조선일보』, 2014 년 12 월 11 일).

2014 년 3 월 25 일에 김대중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칼럼을 빌표했다 (78 번). 그 칼럼에서 김대중은 유대인과 한국인이 과거사에 대해 받는 인정이 다른 원인은 바로 각각이 채택한 방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치를 추적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유대인은 과거사에 대해 더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외신은 2 차 대전이 끝난 지 70 년이 다 된 시점에 과거 유태인 수용소의 경비대원이었던 94 세 독일 노인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는 독일 당국의 기사를 전했다.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의 뻔뻔함이 돋보이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 유태민족은 지금도 유태인에게 잔혹 범죄를 저지른 나치 전범자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워왔다. 그래서 독일은 그런 유태인의 끈질긴 단죄 의식(儀式)에 스스로 호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것들". 김대중, 『조선일보』, 2014 년 3 월 25 일).

2014 년 5 월 2 일에 게재된 칼럼에서는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의 상태와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6 번). 위안부와 다르게 유대인 생존자는 배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역사 교육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박국희 기자는 그해 4 월 28 일에 예루살렘포스트에서 발표된 사설을 인용하였다.

> "그 어떠한 책도, 어떤 수용소나 박물관 견학도 홀로코스트의 공포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육성(肉聲)을 직접 듣고 접해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했다" ("[특파원 리포트] 19 만 3000 명 vs 55 명". 박국희, 『조선일보』, 2014 년 5 월 2 일).

박국희는 이스라엘이 매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의 날'을 경이롭게 서술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이나 역사 교육의 방법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 년 2 월 17 일에 이성훈 기자에 의해 "[특파원 리포트] '역사 전쟁'도 냄비처럼 해서야"라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71 번).

이성훈은 한국인들의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 유럽처럼 참호, 전사자 묘역, 기록물을 보관한 박물관에 대한 견학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KAIST 교수 김대식은 2014 년 2 월 4 일에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70]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72 번). 그에 따르면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도 일본 만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 "… 서양인들에게 과거 일본 만행은 '타인의 아픔'일 뿐이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본은 '난징대학살' '731 부대'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아닌 '소니' '닌텐도' '아니메'이기에 언제나 '세련되고 최첨단'이라는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이다"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70]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 김대식, 『조선일보』, 2014 년 2 월 4 일).

몇 달 전에 김대식은 또 다른 칼럼을 발표하였다. 2013 년 8 월 13 일에 발표된 칼럼에서 일본군이 생체 실험하던 '731 부대'와 나치 전범 요제프 멩겔레 (Josef Mengele)를 비교하였다 (49 번). 아베는 '731'이 적힌 전투기를 탔는데 만약에 메르켈이 'Mengele'라고 적혀 있는 전투기를 탔다면 서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지를 궁금해하였다. 그리고 그해 같은 달 3 일에 비슷한 내용을 가진 사설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은 일제 만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76 번). 같은 주제에 대해 한갑수와 배영수가 쓴 '[독자의 贊反] '아베의 일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칼럼은 2013 년 12 월 17 일에 게재되었다 (48 번). 그들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은 신나치주의 (Neo-Nazi)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둘 모두가 역사를 왜곡하는 데 주력한다고 주장했다.

2014 년 1 월 29 일에 『조선일보』가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라는 사설을 발표하였다 (47 번). 그 사설은 일본의 만행에 대한 불충분한 인정이 한국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대인과 다르게 한국은 과거사를 기억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설은 한국인이 유대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유대인 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 한 곳이 지난 수십년간 법정에 세운 나치 전범만 1100 명이 넘는다. 이 단체는 불과 1 년여 전에도 전범 한 명을 세계에 현상 수배해 붙잡았다".
>
> "… 피해자가 나태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잊는다. 일제 최대 피해국인 우리 얘기다. 우리가 추적해 밝혀낸

> 일제 만행과 그 책임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자문(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판 '사이먼 비젠탈 센터'가 한 곳만 있었어도 일본이 지금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김대식, 『조선일보』, 2014 년 1 월 29 일).

2014 년 1 월 2 일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박세환은 '[기고]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33 번). 그 내용은 한국은 오늘날의 받고 있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박세환은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 "임진왜란 때는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내용을 사람들은 소설 속 장면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나라 잃은 우리 선조들이 실제로 당한 엄중한 현실이었는데 말이다. 아우슈비츠가 어찌 유대인에게만 있는가? 반만년 한민족 역사 이곳저곳에 또 다른 아우슈비츠가 허다하다" ("[기고]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박세환, 『조선일보』, 2014 년 1 월 2 일).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틀어 한국인은 유대인과 유사한 억압을 받았지만 유대인과 다르게 한국인은 그것들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4 년 1 월 22 일에 김태훈 기자는 '이매뉴얼家의 독일 용서'라는 칼럼을 작성하였다 (73 번). 그 칼럼에서 독일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독일 노학자뿐만 아니라, 20 대 학생까지, 국가 차원으로 유대인에게 여전히 사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것을 고려하면 독일과 일본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13 년 10 월 16 일에 박두식 기자는 '과거사 피로감'이라는 칼럼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41 번). 그에 의하면 일본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선도 국가의 자리를 중국에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일본이 과거의 만행에 대해 책임을 질 때까지 이 자리를 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독일 총리가 했던 것처럼 "일제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책임은 영원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일본이 원하는 국제적 지위를 얻으려면 이런 발상과 접근의 대(大)전환이 필요한 때다" ("과거사 피로감". 박두식, 『조선일보』, 2013 년 10 월 10 일).

2013 년 10 월 4 일에 박종세는 칼럼에서 아베 총리를 아주 비판적으로 서술하였다 (75 번).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국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여성 권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박종세는 아베의 말을 아래와 같이 옮긴다.

> "무엇보다 격분해야 할 것은 지금도 무력분쟁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그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를 읽고] '무력분쟁하에서 여성 권리' 언급한 아베의 뻔뻔함". 박종세, 『조선일보』, 2013 년 10 월 4 일).

2013 년 8 월 31 일에 『조선일보』에서 '일본은 왜곡하고 한국은 알려고 하지 않는 '關東대학살''이라는 사설이 발표되었다 (9 번). 이 사설은 일본 간토 (關東)에서 1923 년 9 월 1 일에 발생한 대지진 후 조선인 대학살을 다룬다. 사설은 한국이들이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만 일본의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한국인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고교 교과서에서 간토 대학살을 기술하는 책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 정부에 간토 대학살 규명이나 사과를 아직도 요구하지 않았다.

2) 『한겨레』의 사설 및 칼럼

2015 년 5 월 20 일에 박민희 기자는 '[편집국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101 번). 그는 위에서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칼럼들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성의 퇴행' 과정을 비판하는 일이다. 그는 정치적 이유로 그해의 5·18 민주화운동 35 주년 기념식을 두 개의 행사로 분리시킨 정부를 심하게 비난했다.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한 것을 고려하면서 일본은 왜 반성하지 않느냐고 묻는 한국이들에게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같은 기준으로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성의 퇴행, 시민들의 권리와 목숨을 짓밟을 수 있는 독재를 그리워하는 위험한 정치적 신호에 맞서야 한다" ("[편집국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박민희, 『한겨레』, 2015 년 5 월 20 일).

즉,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아픈 과거사가 일본 만행뿐만 아니라, 독재권으로부터 받던 억압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칼럼과 유사하게 2014 년 3 월 24 일에 곽병찬에 의해 '독일의 기억·기념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길'라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113 번). 곽병찬은 내부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은 기관, 4·19 국립묘지기념관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전념하는 기념물이 부족하는 사실을 비판했다.

2014 년 1 월 16 일에 은종복에 의해 '[왜냐면] 2014 년을 사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100 번). 은종복도 비판의 화살을 내부로 돌린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늙은이들이나 약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 년 12 월 14 일에 김누리에 의해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라는 칼럼 게재되었다 (81 번). 김누리는 독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칭찬하고 독일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따라갈 모범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독일은 – 일본과는 달리 – '반권위주의 교육', '비판교육', '저항권 교육'을 통해 나치즘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과거청산의 모범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 김누리, 『한겨레』, 2014 년 12 월 14 일).

2014년 11월 12일에 문정빈은 '[왜냐면] ‘죽음’에 걸어가는 일'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105 번). 그는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의 태도 근저에는 과거에 대한 ‘무공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4월 20일에 백태웅 쓴 '[세상 읽기] 히틀러, 아베, 분노의 정치'라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126번). 백태웅은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 년 3 월 19 일에 김일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독일은 과거에 유대인에 대해 저지른 학살과 만행을 독일인의 공동책임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강조했다 (123 번). 그 때문에 독일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좋은 반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냉랭하다고 주장했다. 2013 년 8 월 14 일에 이제후에 의해 '[편집국에서] 역사의 복수'라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과거에 대한 태도가 비유되었고 위에 설명한 주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120 번).

2013 년 8 월 15 일에 도정일에 의해 ' [특별기고] 고노담화, 역사교육, 인문학'이라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91 번). 도정일은 위안부를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한 일본 정치인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를 언급하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5 년 4 월 28 일에 성공회대 교수 조효제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79 번). 그는 독일의 역사 교육이 신기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서 그는 홀로코스트 관련한 기념물, 기념관, 추모시설과 자료관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집시들, 동성애자들과 다른 피해자를 위한 기념물들도 곳곳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나 역사적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독일은 고통스럽더라도 역사의 진실에 진정으로 대면한다고 판단하였다.

2014 년 2 월 19 일에 조한욱은 '[조한욱의 서양사람] 홀로코스트 논쟁'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87 번). 조한욱은 미국의 역사가 데버라 립스태트 (Deborah Lipstadt)와 홀로코스트의 실체를 부정하는 데이비드 어빙 (David Irving)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설이나 칼럼에서 다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주장을 밝혔다. 그것은 정치가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이용한다고 평가하는 주장이다. 조한욱은 립스태트의 말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인용한다.

> "립스태트는 홀로코스트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가들도 비난했다" ("[조한욱의 서양사람] 홀로코스트 논쟁". 조한욱, 『한겨레』, 2014 년 2 월 19 일).

2013 년 10 월 27 일에 이창곤은 '[싱크탱크 시각] 왜 독일이 강한가'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90 번). 그 칼럼에서 '강한 독일'의 비결과 원천을 찾으면서 "시선을 가장 끈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독일인들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 어디서든지 과거사를 상기시키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버스 정류장에도 2 차대전 동안 유대인을 강제이주를 지휘한 나치 친위대 장교인 아이히만의 행적과 사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경탄할 만한 것이라고 그는 평가한다. 이창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바는 과거를 철저히 성찰하고 또 집요하게 교육하는 그들의 역사 기억의 방식"[이다]

("[싱크탱크 시각] 왜 독일이 강한가". 이창곤, 『한겨레』, 2013 년 10 월 27 일).

2013 년 7 월 17 일에 박인규는 '[왜냐면] 소외와 차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92 번). 디아스포라 용어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언급하는 박인규가 한국인과 재외동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쓴 칼럼이다. 박인규에 의하면 재외동포들 중 강제징용으로 한반도를 떠나야 했던 동포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떠난 동포들은 해방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박인규는 더 이상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

> "미래 세대가 과거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재외동포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이나 역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한인들의 생명을 훼손했던 현장에 기념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과거사가 올바르게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소외와 차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박인규, 『한겨레』, 2013 년 7 월 17 일).

제 3 절　　논의

<표 4>는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발표된 사설이나 칼럼의 주요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4> 주요 주장 별로 나눈 '과거사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설과 칼럼

	주요 주장	주장에 동의하는 『조선일보』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주장에 동의하는 『한겨레』에서 게재된 사설·칼럼
1	독일과 일본은 과거에 타민족을 억압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33 번, 38 번, 46 번, 49 번, 67 번, 68 번, 69 번, 73 번	81 번, 91 번, 101 번, 105 번, 120 번, 123 번, 126 번
2	일본은 독일의 자기반성과 같은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38 번, 46 번, 49 번, 67 번, 69 번, 73 번	79 번, 81 번, 91 번, 101 번, 105 번, 120 번, 123 번, 126 번
3	일본 지도자들은 위선적이다.	38 번, 44 번, 48 번, 49 번, 55 번, 68 번, 69 번, 73 번, 75 번	-
4	한국인들은 과거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법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6 번, 43 번, 47 번, 54 번, 59 번, 68 번	-
5	한국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역사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71 번	79 번, 90 번
6	일본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위선적이다.	49 번, 72 번, 76 번	-

7	일본의 만행뿐만 아니라, 한국 내부 과거사에 대해서 퇴행하는 과정을 비판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 교육은 왜곡된다.**	9 번	92 번, 100 번, 101 번, 113 번
8	이스라엘이나 미국 정치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이용한다.	-	87 번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하고 검색어를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하면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기사의 수이다. 『조선일보』에서 기준에 맞는 기사는 24 개 발표되었는데 그 중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관련한 내용은 18 개로 나타났다. 『한겨레』에서 발표된 기사 중 그러한 기준에 맞는 기사는 9 개인데,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관련한 내용은 8 개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차이점은 유대인들의 경험을 배우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분석된 6 개의 기사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대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사이몬 비젠탈 센터'와 같은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겨레』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즉, '유대인의 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는 유대인들의 방식을 이상화하지만 『한겨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겨레』의 경우에,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관련한 기사들 중에 일본 만행뿐만 아니라, 한국 독재주의 시대의 억압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4 개였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본 간토 조선인 대학살과 관련한 한국의 역사 교육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한 개 발견되었다.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기사들을 분석한 후에 1 장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들에 대답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정리하고자 한다.

(1.a.)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로 흔한가?

모든 기사를 살펴보면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고정관념이 한국 사회에서도 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대인의 '지적 우월성'이나 '똑똑한 유대인'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유대인의 힘'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다루는 기사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제 2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아닌 다른 웹 사이트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이 매우 흔하고 유대인에 관한 음모론도 인기가 많다.

(1.b.)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한국인은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채택했는가?

제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한국에 유입된 네 가지 경

로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기독교를 훼손하는 유대인에 관한 인식, 그리고 세계화이다. 이러한 유입 경로들이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a.)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유대인의 교육'은 무엇인가? 이 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은 유대 경전의 가르침, 유대 부모들의 가정교육의 중요성 강조, 창의력을 키우는 토론 문화 등으로 설명되었다.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교육 방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면 한국 아이들이 유대인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b.)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설명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한겨레』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기사를 하나도 게재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조선일보』는 정치 이슈화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교육'을 매우 이상주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a.) 한국 미디어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은 흔한가? 신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유대인의 습관을 모방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을 구별해야 하는가?

(3.b.)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차이가 있는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 그러한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의견을 찾을 수 있다.

(4.a.) 한국 미디어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4.b.) 2014 년에 발생된 이스라엘·가자 전쟁 (또한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으로 알려진 전쟁이다) 후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문 보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후 상관없이 두 신문 모두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실어 왔다.

(4.c.)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겨레』는 『조선일보』보다 이스라엘에 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두 신문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이나 아랍인을 증오한다고 설명하지만, 팔레스타인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을 묘사하면서 『한겨레』는 '학살·도살·살육·살해'와 같은 단어를 쓴 반면 『조선일보』는 이와 비슷한 단어를 쓰지 않았다. 게다가, 『한겨레』에서 발표된 3 개의 기사는 이스라엘이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a.) 유대인과 한국인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한국 미디어가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신문은 독일과 일본이 자국의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 일본이 독일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5.b.)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 문제과 관련한 보도에 차이가 있는가?

『조선일보』의 경우, 일본 지도자들이 위선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 대학살을 인정하지만 20 세기 전반에 조선인이나 다른 아시아인에게 자국이 저지른 잔학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기사가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과거사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방법을 적용하기를 추천한다. 반면, 『한겨레』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차이점은 과거사 기억과 관련하여 한국 내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다. 『조선일보』보다 『한겨레』는 한국 내에서의 역사 교육법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자행된 만행도 언급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분석을 통해 유대인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두 신문을 비교하면서 유대인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검색할 주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다. 사실, '유대인' 단어를 검색하면, '유대인들', '유대인이었다'와 비슷한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권력' 단어를 검색하면 '절대권력자'까지 나타난다. 하지만 '유대인' 단어를 검색하면 '유대교'나 '유대민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가 결과 목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연구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기간과 관련한 것이다. 물론, 연구 기간이 더 길수록 더 포괄적이고 완벽한 서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주제를 다루는 신문 기사가 많기 때문에 연구 기간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본 논문에서 분석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기사는 '사설·칼럼' 섹션에서만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그 두 신문의 다른 섹션에서 발표된 기사는 연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는 『조선일보』의 '문화' 섹션에서 '유대인 + 이스라엘'이라는 주요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가 7 개였다. 그 섹션과 일치하는 『한겨레』의 '문화' 섹션에서 그러한 주요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는 12 개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사를 분석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국문

김종빈. 2001. 『갈등의 핵, 유태인』. 효영출판.
김종철. 2010.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유대인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리수.
류태영. 1996a. 『이스라엘 농촌사회구조와 한국 농촌사회』. 養英閣.
———. 2006. 『이스라엘 바로 알기』. 국민일보사.
———. 1996b. 『천재는 없다: 위대한 교사 유태 어머니에 관한 교육 에세이』. 성현출판사.
———. 2001.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 국민일보.
박재선. 2010.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 해누리.
손혜신. 2005. 『유태인 & 이스라엘 있는 그대로 보기』. 선미디어.
우노 마사미. 1991. 김홍기 옮김. 『(세계 지배를 노린) 유태인의 세계 경제전략: 세게의 경제·정보·매스컴을 정악』. 교문사.
———. 2001. 서인석 옮김. 『유태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황금두뇌.
유기천 (劉基天). 1999. 『세계혁명』. 벽호.
이원복. 2012.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김영사.
제이콥스, 스티븐 레너드·마크 바이츠만. 2008. 이창신 옮김. 『세계지배 프로젝트 시온의 정서』. 김영사.
조철수. 2003.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김영사.
최이리유카바. 2002a. 『거짓, 모욕 그리고 음모』. 창작시대.
———. 2002b. 『9·11 위대한 기만』. 문예춘추.
———. 2005. 『그림자 정부: 숨겨진 절대 권력자들의 세계 지배 음모』. 해냄.
———. 2006. 『’그림자 정부’가 시작된 비밀문서: 시온의

칙훈서』. 해냄.
포드, 헨리. 2013. 김현영 옮김. 『국제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리버크레스트.
하우드, 리처드. 2014. 김현영 옮김. 『정말 600 만이 죽었나?』. 리버크레스트.

영문

Ben-Dor Benite, Zvi. 2009. *The Ten Lost Trib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rroll, James. 2001. *Constantine's Sword: The Church and the Jews, A Hist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Clark, Charles Allen. 1961. *Religions of Old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Eidelberg, Joseph. 2005. *The Biblical Hebrew Origin of the Japanese People*. Jerusalem: Gefen Publishing House.
Eng, David L. 2001.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Glock, Charles Y. and Rodney Stark. 1966. *Christian Beliefs and Anti-Semitism*.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Katz, Jacob. 1970. *Jews and Freemasons in Europe 1723-1939*.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Kovalio, Jacob. 2009. *The Russian Protocols of Zion in Japan: Yudayaka / Jewish Peril Propaganda and Debates in the 1920s*.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Lee, Jennifer. 2002. *Civility in the City: Blacks, Jews, and Koreans in Urban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cLeod, Nicholas. 1879. *Korea and the Ten Lost Tribes of Israel: with Korean, Japanese and Israelitish Illustrations*. Yokohama: C. Levy and the Sei Shi Bunsha Co.
Nevo, Ruth. 1980. *Comic Transformations in Shakespeare*. New York: Methuen & Co.
Pinar, William. 2006. *Race, Religion, and a Curriculum of*

Reparation: Teacher Educ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Ryu, Paul K. 1997. *The World Revolution*. San Diego, California: American West Independent Publishing.

Shachan, Avigdor. 2007. *In the Footsteps of the Lost Ten Tribes*. New York: Devora Publishing.

Shin, Gi-Wook. 2010. *One Alliance, Two Lenses: U.S.-Korea Relations in a New Er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Silving, Helen and Paul K. Ryu. 1988. *Memoirs*. New York: Vantage Press.

Tokayer, Marvin and Mary Swartz. 1979. *The Fugu Plan: The Untold Story of the Japanese and the Jews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Paddington Press.

Wells, Kenneth M. 1990.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 논문

국문

김재한. 2009.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2): 140-161.

류태영. 2013. "유대인의 신앙 교육에서 배우는 신앙 대물림의 지혜." 『사목정보』 6(1): 33-37.

민대훈. 2005. "토라와 유대인 가정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1: 221-238.

서길수. 2014. "셰익스피어와 정의: 『베니스의 상인』을 중심으로."『신영어영문학』 59: 107-123.

손영준. 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韓國言論學報』 48(2): 240-266.

오대영. 2014. "이스라엘 유대인의 창의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종합연구』 12(2): 103-131.

이기우 · 권영주 · 기영화 · 이단비. 2013. "새마을 운동 사례 연구."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원섭. 2007.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서울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2: 325-366.

최종고. 2010. "한국법학과 유대인 법률가." 『법연』 6: 36-39.

영문

Baumann, Martin. 2010. "Exile." In *Diasporas: Concepts, Intersections, Identities*, edited by Kim Knott and Seán McLoughlin, 19-23. New York: Zed Books.

Bogdan, Atila. 2002. "Cumulative Charges, Convictions and Sentencing at the Ad Hoc International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1): 1-32.

Chang, Paul Yunsik. 2006. "Carrying the Torch in the Darkest Hours: The Sociopolitical Origins of Minjung Protestant Movements." In *Christianity in Korea*,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and Timothy S. Lee, 195-22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Chang, Szu-Hsien and Brian H. Kleiner. 2003. "Common Racial Stereotypes." *Equal Opportunities International*, 22(3): 1-9.

Choi, Chongko. 2009. "History of the Korean-Jewish Relationships." Lecture,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Jerusalem, Israel, February 4, 2009.

Goodman, David G. 2011. "The Protocols in Japan." In *Paranoid Apocalypse: A Hundred-Year Retrospective on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edited by Richard Landes and Steven T. Katz, 135-15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Hahm, Chaihark. 2004. "Rule of Law in South Korea: Rhetoric and Implementation." In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Theories and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in*

Twelve Asian Countries, France and the U.S., edited by Randall Peerenboom, 385-416. London: RoutledgeCurzon.

Halpern, Ben. 1981. "What Is Antisemitism?" *Modern Judaism*, 1(3): 251-262.

Jung, Heon Joo. 2010.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South Korea: Deconstructing Hegemonic Ideas and Threat Perception." *Asian Survey*, 50(5): 946-964.

Kaplan, Edward H. and Charles A. Small. 2006. "Anti-Israel Sentiment Predicts Anti-Semitism in Europ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4): 548-561.

Kim, David, W. 2012. "What Shall I Read? How Korean Christians in Diaspora Read the Hebrew Canon." *Studies in World Christianity*, 18(2): 116-133.

Kim, Jonghwan. 1995. "Shakespeare in Korean Cultural Context." *Asian Theatre Journal*, 12(1): 37-49.

Kim, Leo. 2011. "Media Framing of Stem Cell Research: A Cross-National Analysi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Science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 *Journal of Science Communication*, 10(3): 1-16.

Kim, Wonil. 2006. "Minjung Theology's Biblical Hermeneutics: An Examination of Minjung Theology's Appropriation of the Exodus Account." In *Christianity in Korea*,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and Timothy S. Lee, 221-237.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andes, Richard and Steven T. Katz. 2011. "Introduction: The Protocols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In *Paranoid Apocalypse: A Hundred-Year Retrospective on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edited by Richard Landes and Steven T. Katz, 1-20.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Lee, Gunho and Heungseok Koh. 2010. "Who Controls Newspapers' Political Perspectives? Source Transparency and Affiliations in Korean News Articles about US Beef

Import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4): 404-422.

Lee, Hong Chul, Michael J. Gross and Sang Ho Lee. 2010. "A Comparison of Reporting Tendency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Korean Newspapers Towards Travel to Australia." Proceedings of the New Zealand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Conference, Auckland, Aotearoa, New Zealand, November, 24-26.

Lee, Jongsook. 1997. "' Shakespeare, Thou Art Translated!' : Shakespeare in Korea, 1906-1945."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0: 65-80.

Lee, Jung Bock. 2001. "The Political Process in Korea." In *Understanding Korean Politics: An Introduction*, edited by Hoom Kil Soong and Chung-in Moon, 141-173.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Levkowitz, Alon. 2010.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6): 1-9.

———. 2012. "Korea and the Middle East Turmoil: A Reassessment of South Korea-Middle East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4(2): 225-238.

Lewis, Cherie S. 1994. "Koreans and Jews." *The American Jewish Committee: International Perspectives*, 26: 1-15.

Lyan, Irina and Alon Levkowitz. 2015. "From Holy Land to 'Hallyu Land': The Symbolic Journey Following the Korean Wave in Israel." *The Journal of Fandom Studies*, 3(1): 7-21.

Ma, Youngsam. 2010. "Israel'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Israel Journal of Foreign Affairs,* IV(3): 81-89.

McKendy, Thomas. 1988. "Gypsies, Jews, and 'The Merchant of Venice'." *The English Journal*, 77(7): 24-26.

Min, Young. 2004. "Campaign Agenda Formation: The News Media in the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 of 2000."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4(2): 192-204.

Otmazgin, Nissim and Irina Lyan. 2013. "Hallyu across the Desert: K-pop Fandom in Israel and Palestine."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9: 68-89.

Pargament, Kenneth I., Kelly Trevino, Annette Mahoney and Israela Silberman. 2007. "They Killed Our Lord: The Perception of Jews as Desecrators of Christianity as a Predictor of Anti-Semitism."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2): 143-158.

Park, Hong-Won. 2002. "The Press and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Sunshine Policy: Content Analysis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In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edited by Byung Chul Koh, 302-323.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Park, Myung-Jin, Chang-Nam Kim and Byung-Woo Sohn, 2000. "Modern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werful State: The Korean Media." In *De-Westernizing Media Studies*, edited by James Curran and Myung-Jin Park, 111-12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laskow, Judith. 1980. "Blaming Jews for Inventing Patriarchy." *Lilith*, 7: 11-12.

Podoler, Guy. 2013. "A South Korean Progressive Outlook on the Middle East Conflict: Contextualizing *Hankyoreh*'s Coverage of the Gaza War." *Korea Observer*, 44(2): 223-247.

Rose, Peter I. 1994. "Blaming the Jews." *Society*, 31(6): 35-40.

Schwarz, Sidney. 1986. "Redefining Zionism." *Judaism: A Quarterly Journal of Jewish Life and Thought*, 35(3): 316-324.

Shin, Gi-Wook and Kristin C. Burke. 2009. "North Korea and Contending South Korean Identities: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Media;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cademic Paper Series on Korea*, 1: 150-167.

Shneer, David and Caryn Aviv. 2010. "Jews as Rooted Cosmopolitans: The End of Diaspora?" In *Diasporas: Concepts, Intersections, Identities*, edited by Kim Knott and Seán McLoughlin, 263-268. New York: Zed Books.

Silberman, Israela. 2005. "Religious violence, Terrorism, and Peace: A Meaning-System Analysis."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edited by Raymond F. Paloutzian and Crystal L. Park, 529-549. New York: Guilford Press.

Song, NIU. 2014. "God Belief in South Korea-Israel Relations." *World Journal of Islamic History and Civilization*, 4(4): 139-145.

Song, Yonghoi. 2007. "Internet News Media and Issue Development: A Case Study on the Roles of Independent Online News Services as Agenda-Builders for Anti-US Protests in South Korea." *New Media & Society*, 9(1): 71-92.

Smith, Tom W. 1999. "The Religious Right and Anti-Semitism."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0(3): 244-258.

Sturdy Colls, Caroline. 2012. "Holocaust Archeology: Archeological Approaches to Landscapes of Nazi Genocide and Persecution." *Journal of Conflict Archeology*, 7(2): 70-104.

Yoon, Youngchul and Gwangho E. 2002. "Media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Coverage of Dokdo Island." *Korea Journal*, 42(4): 264-297.

Yun, Sun-Jin, Dowan Ku, Nyun-Bae Park and Joon Han.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n Newspaper Coverage on Climate Change: Focusing on Conservative,

Progressive, and Economic Newspapers." *Development and Society*, 41(2): 201-228.
Woodbury, Marsha. 2003. "Jewish Images that Injure." In *Images that Injure: Pictorial Stereotypes in the Media*, edited by Paul Martin Lester and Susan Dente Ross, 121-130. London: Praeger Publishers.

3. 신문 기사 검색 자료

국문

"[2030 잠금해제] 나의 학습권은 우월한가". 희정, 『한겨레』, 2015.5.31. 2015.9.8 접속.
"[강천석 칼럼] 묵은 시대와 作別하는 법". 강천석, 『조선일보』, 2013.9.13. 2015.9.28 접속.
"[강천석 칼럼] 惡의 톱니바퀴에 낀 2300 만 北 동포 비명". 강천석, 『조선일보』, 2013.12.20. 2015.8.30 접속.
"[곽병찬 칼럼] 속이지 마라". 곽병찬, 『한겨레』, 2014.5.7. 2015.9.18 접속.
"[기고]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박세환, 『조선일보』, 2014.1.2. 2015.8.29 접속.
"[기고] '동방無禮지국' 안 되려면". 민현식, 『조선일보』, 2013.12.19. 2015.8.18 접속.
"[기고] 한반도 벗어나 '韓民族 세계 국가' 준비하자". 좌승희, 『조선일보』, 2014.5.21. 2015.8.20 접속.
"[기고] 화학적 統合 이뤄야 할 정부 출연 연구소들". 이병권, 『조선일보』, 2014.7.2. 2015.9.17 접속.
"[기자의 시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박국희, 『조선일보』, 2015.2.2. 2015.9.16 접속.
"[기자의 시각] 되살아난 反유대주의". 박국희, 『조선일보』, 2014.10.4. 2015.9.23 접속.
"[기자의 시각] '두 개의 혀'를 가진 與黨". 최승현, 『조선일보』, 2015.4.13. 2015.8.28 접속.
"[기자의 시각] '새로운 貴族'의 탄생". 오윤희, 『조선일보』, 2015.4.22. 2015.8.13 접속.

"[기자의 시각] '샬롬'과 '살렘'". 노석조, 『조선일보』, 2014.1.21. 2015.9.27 접속.
"[기자의 시각] '석유 시대'의 終末". 노석조, 『조선일보』, 2015.6.11. 2015.9.23 접속.
"[기자의 시각] 울지 않는 피랍소년들 父母. 박국희, 『조선일보』, 2014.6.19. 2015.9.25 접속.
"[기자의 시각] 위안부 歷史館 없는 한국". 박국희, 『조선일보』, 2014.7.1. 2015.9.20 접속.
"[기자의 시각] 파업하는 유대인 高校生들". 박국희, 『조선일보』, 2015.1.21. 2015.8.13 접속.
"[기자의 시각] 히틀러도 어린이였다?". 박국희, 『조선일보』, 2014.7.31. 2015.9.25 접속.
"[기자의 시각] 反省의 힘". 노석조, 『조선일보』, 2015.2.23. 2015.8.28 접속.
"[기자의 시각] 國家의 배짱". 노석조, 『조선일보』, 2015.4.17. 2015.9.22 접속.
"[기자의 시각] 獨·이스라엘 수교 50 주년". 박국희, 『조선일보』, 2014.11.18. 2015.9.2 접속.
"[김기철의 동서남북] 야드 바셈에서 배운 歷史戰爭(역사전쟁) 승리법". 김기철, 『조선일보』, 2014.12.11. 2015.8.28 접속.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118] 뇌와 트라우마". 김대식, 『조선일보』, 2015.1.8. 2015.9.2 접속.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45] 우리들 머리 바깥의 벽, 그리고 머리 안의 벽". 김대식, 『조선일보』, 2013.8.13. 2015.9.2 접속.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60] 사람은 옷을 만들고 옷은 사람을 만든다". 김대식, 『조선일보』, 2013.11.26. 2015.8.28 접속.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66] 에니그마, 뇌, 그리고 동성연애". 김대식, 『조선일보』, 2014.1.7. 2015.9.21 접속.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70]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 김대식, 『조선일보』, 2014.2.4. 2015.9.21 접속.
"[김대중 칼럼]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것들". 김대중,

『조선일보』, 2014.3.25. 2015.9.28 접속.
"[김정운의 敢言異說, 아니면 말고] 女子는 男子를 위해 화장하지 않는다!". 김정운, 『조선일보』, 2014.4.4. 2015.8.29 접속.
"[김정운의 敢言異說, 아니면 말고] 난 '그 메기'가 '그 메기'인 줄 알았다!". 김정운, 『조선일보』, 2014.8.29. 2015.9.5 접속.
"[김태훈의 트렌드 돋보기] 이매뉴얼家의 독일 용서". 김태훈, 『조선일보』, 2014.1.22. 2015.9.20 접속.
"[데스크에서] 폭탄주 vs 마오타이 알잔". 김기훈, 『조선일보』, 2014.7.26. 2015.8.26 접속.
"[독자의 贊反] '아베의 일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갑수, 『조선일보』, 2013.12.17. 2015.9.2 접속.
"[동서남북] 메이지 산업 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김기철, 『조선일보』, 2015.5.21. 2015.9.14 접속.
"[류근일 칼럼] '주님 이름 끼고 주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류근일, 『조선일보』, 2013.11.26. 2015.9.5 접속.
"[만물상] 가림막 뒤 국정원 직원". 오태진, 『조선일보』, 2013.8.21. 2015.9.28 접속.
"[만물상] '국적 쇼핑'". 방현철, 『조선일보』, 2014.2.18. 2015.9.27 접속.
"[만물상] 안네의 일기 '속편'". 김태익, 『조선일보』, 2015.6.13. 2015.8.24 접속.
"[만물상] 용서의 힘". 김태익, 『조선일보』, 2015.6.23. 2015.8.28 접속.
"[만물상] '일등病'". 오태진, 『조선일보』, 2015.6.12. 2015.8.13 접속.
"[만물상] '일본의 쉰들러'". 오태진, 『조선일보』, 2015.4.30. 2015.9.16 접속.
"[만물상] '행복 십계명'". 오태진, 『조선일보』, 2014.8.4. 2015.8.17 접속.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12)]교황이 프랑스왕에게 볼모로 잡혀 머물렀던 아비뇽 교황청". 문갑식, 『조선일보』, 2014.8.26. 2015.8.29 접속.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26)]명탐정 셜록 홈즈 박물관에 가보니 한숨만 나오네". 문갑식, 『조선일보』, 2014.10.20. 2015.8.28 접속.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29)]'보르도, 보르도, 보르도!' 영국인들이 왜 하필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에 열광할까?". 문갑식, 『조선일보』, 2014.11.20. 2015.8.28 접속.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30)]일본계 와인회사가 동양인 차별 더 심해". 문갑식, 『조선일보』, 2014.11.25. 2015.9.28 접속.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34)]화가 샤갈이 바람 안피운 것은 집터 때문?". 문갑식, 『조선일보』, 2014.12.10. 2015.8.19 접속.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조선일보』, 2014.3.25. 2015.8.20 접속.
"[문갑식의 세상읽기] 브란덴부르크門에서 광화문을 본다". 문갑식, 『조선일보』, 2014.12.30. 2015.9.18 접속.
"[박두식 칼럼] 과거사 피로감". 박두식, 『조선일보』, 2013.10.16. 2015.8.28 접속.
"[박두식 칼럼] 시리아 사태, 미국 退潮의 시작인가". 박두식, 『조선일보』, 2013.9.4. 2015.8.29 접속.
"[박두식 칼럼] 야당의 '싸가지病' 다시 도진 건가". 박두식, 『조선일보』, 2015.2.11. 2015.8.28 접속.
"[박은주의 터치! 코리아] 이제 아들 덕 좀 보자". 박은주, 『조선일보』, 2013.8.6. 2015.8.27 접속.
"[발언대] 700 만 在外동포를 국가 발전 동력으로". 조규형, 『조선일보』, 2015.6.2. 2015.8.26 접속.
"[발언대]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의 허와 실". 현용수, 『조선일보』, 2013.10.3. 2015.8.18 접속.
"[발언대] 漢字 지식이 科學·창의력 이끈다". 전광진, 『조선일보』, 2014.11.15. 2015.8.13 접속.
"[사설]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방치하는 야만". 사설, 『한겨레』, 2015.6.5. 2015.9.21 접속.
"[사설] '나치 방식 改憲' 들고나온 막가는 日 극우 정치인들". 사설, 『조선일보』, 2013.7.31. 2015.8.31 접속.

"[사설]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사설, 『조선일보』, 2014.1.29. 2015.9.2 접속.
"[사설] '대통령 下野'까지 거론한 정청래의 自害性 막말 시리즈". 사설, 『조선일보』, 2015.2.14. 2015.9.16 접속.
"[사설] 미국과 유럽이 나서야만 일본은 잘못 인정하나". 사설, 『조선일보』, 2013.8.3. 2015.9.24 접속.
"[사설] 아베 홀로코스트 추모가 쇼로 비치는 까닭". 사설, 『조선일보』, 2015.1.21. 2015.9.2 접속.
"[사설] 여야가 모사드에서 정말 봐야 할 것". 사설, 『조선일보』, 2014.1.20. 2015.9.26 접속.
"[사설] 일본서 "독일은 역사와 똑바로 마주했다"고 한 메르켈 총리". 사설, 『조선일보』, 2015.3.10. 2015.9.16 접속.
"[사설] 일본은 왜곡하고 한국은 알려고 하지 않는 '關東대학살'". 사설, 『조선일보』, 2013.8.31. 2015.8.13 접속.
"[사설] 東海 병기·위안부 만화전서 日 이겨낸 민간의 힘". 사설, 『조선일보』, 2014.2.8. 2015.8.29 접속.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 김누리, 『한겨레』, 2014.12.14. 2015.8.5 접속.
"[세상 읽기] 전체주의와 생각의 힘". 김종대, 『한겨레』, 2014.1.9. 2015.9.16 접속.
"[세상 읽기] 히틀러, 아베, 분노의 정치". 백태웅, 『한겨레』, 2014.4.20. 2015.10.2 접속.
"[시론] '책 읽는 서울'을 꿈꾸며". 은종복, 『한겨레』, 2015.5.4. 2015.9.29 접속.
"[시론] 가자(Gaza) 유혈 사태 부른 이·팔 강경파". 인남식, 『조선일보』, 2014.8.6. 2015.8.31 접속.
"[시론] 민주주의만큼 성숙해야 할 法治主義". 장영수, 『조선일보』, 2014.7.17. 2015.8.30 접속.
"[시론] 佛 테러 계기 '小규모 타깃 공격' 대비해야". 조홍식, 『조선일보』, 2015.1.19. 2015.9.27 접속.
"[싱크탱크 시각] 왜 독일이 강한가". 이창곤, 『한겨레』, 2013.10.27. 2015.8.25 접속.
"[아침 햇발] 스피노자, 가자, 예언자". 고명섭, 『한겨레』, 2014.8.7. 2015.8.25 접속.

"[아침 햇발] 이스라엘·쿠바 그리고 사드". 김의겸, 『한겨레』, 2014.10.7. 2015.10.7 접속.
"[야! 한국사회] 불온한 '전라도의 힘'". 이라영, 『한겨레』, 2013.9.4. 2015.9.17 접속.
"[야! 한국사회] 사랑의 깃발이 드높다". 권명아, 『한겨레』, 2014.12.17. 2015.9.21 접속.
"[양상훈 칼럼] 6 월에 생각하는 '철이 든 나라'". 양상훈, 『조선일보』, 2014.6.26. 2015.8.19 접속.
"[오늘의 100 자평] 이스라엘 '무차별 아랍人 증오'… 해외 유대인 "新나치 행태"". 사설, 『조선일보』, 2014.8.27. 2015.9.26 접속.
"[왜냐면] '가자의 절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김어진, 『한겨레』, 2014.7.30. 2015.9.21 접속.
"[왜냐면] '죽음'에 걸어가는 일". 문정빈, 『한겨레』, 2014.11.12. 2015.9.15 접속.
"[왜냐면] 2014 년을 사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글". 은종복, 『한겨레』, 2014.1.16. 2015.9.13 접속.
"[왜냐면] 교황 비오 12 세와 교회의 정치 참여". 고연미, 『한겨레』, 2013.12.2. 2015.9.19 접속.
"[왜냐면] 독일과 일본 그리고 보통국가". 김일수, 『한겨레』, 2014.3.19. 2015.10.3 접속.
"[왜냐면] 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을 위한 집을 짓자". 송진영, 『한겨레』, 2013.9.9. 2015.9.22 접속.
"[왜냐면] 소외와 차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박인규, 『한겨레』, 2013.7.17. 2015.8.25 접속.
"[왜냐면] 히틀러, 헌재 결정 그리고 지성의 공백". 박영규, 『한겨레』, 2014.12.29. 2015.9.14 접속.
"[유레카] 리나후도". 김지석, 『한겨레』, 2014.12.23. 2015.9.15 접속.
"[유레카]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 최재봉, 『한겨레』, 2013.9.29. 2015.9.15 접속.
"[유레카] 몬주익". 최우성, 『한겨레』, 2015.5.3. 2015.9.9 접속.
"[유레카] 죄책감". 박순빈, 『한겨레』, 2014.5.12. 2015.9.16 접속.
"[윤희영의 News English]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푸틴". 윤희영,

『조선일보』, 2014.5.27. 2015.9.5 접속.
"[인문의 향연] 現金이 좋으세요? 膳物이 좋으세요?". 윤대현, 『조선일보』, 2015.5.11. 2015.8.24 접속.
"[일사일언] 청년이여, 숲으로 가라". 손관승, 『조선일보』, 2015.1.6. 2015.8.20 접속.
"[조선일보를 읽고] '무력분쟁하에서 여성 권리' 언급한 아베의 뻔뻔함". 박종세, 『조선일보』, 2013.10.4. 2015.9.23 접속.
"[조선일보를 읽고] 아무리 사실이라 믿어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문유석, 『조선일보』, 2014.6.27. 2015.8.19 접속.
"[조한욱의 서양사람] 대학의 이념". 조한욱, 『한겨레』, 2015.3.25. 2015.8.14 접속.
"[조한욱의 서양사람] 독일 민족주의 물리학". 조한욱, 『한겨레』, 2013.12.18. 2015.8.22 접속.
"[조한욱의 서양사람] 이상한 정언명령". 조한욱, 『한겨레』, 2014.5.14. 2015.8.21 접속.
"[조한욱의 서양사람] 제르미날". 조한욱, 『한겨레』, 2014.4.9. 2015.8.22 접속.
"[조한욱의 서양사람] 홀로코스트 논쟁". 조한욱, 『한겨레』, 2014.2.19. 2015.8.22 접속.
"[조현의 휴심정] 세상을 바꾼 자들의 믿음". 조현, 『한겨레』, 2014.10.27. 2015.9.17 접속.
"[크리틱] 강기훈 학교". 서해성, 『한겨레』, 2015.5.29. 2015.9.17 접속.
"[크리틱] 역병시대". 서해성, 『한겨레』, 2015.6.19. 2015.9.6 접속.
"[크리틱] 장발장은행은 어디 있는가". 서해성, 『한겨레』, 2015.3.6. 2015.9.12 접속.
"[태평로] 문 닫게 된 삼일로 창고극장을 보며". 김태익, 『조선일보』, 2015.3.24. 2015.8.25 접속.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 홍세화, 『한겨레』, 2015.1.29. 2015.9.12 접속.
"[특별기고] 고노담화, 역사교육, 인문학". 도정일, 『한겨레』, 2013.8.15. 2015.8.25 접속.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③—이제 '기본소득제'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홍세화, 『한겨레』, 2014.3.13. 2015.8.21 접속.
"[특별기고] 카인의 분노와 냉소적 항변". 김경재, 『한겨레』, 2014.9.18. 2015.9.15 접속.
"[특파원 리포트] 19만3000명 vs 55명". 박국희, 『조선일보』, 2014.5.2. 2015.9.19 접속.
"[특파원 리포트] '역사 전쟁'도 냄비처럼 해서야". 이성훈, 『조선일보』, 2014.2.17. 2015.9.19 접속.
"[편집국에서] 남 일이 아니다!". 박민희, 『한겨레』, 2014.8.6. 2015.10.8 접속.
"[편집국에서] 역사의 복수". 이제훈, 『한겨레』, 2013.8.14. 2015.9.23 접속.
"[편집국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박민희, 『한겨레』, 2015.5.20. 2015.9.13 접속.
"[朝鮮칼럼 The Column] 샤일록을 위한 辯論". 안경환, 『조선일보』, 2014.4.10. 2015.8.26 접속.
"[朝鮮칼럼 The Column] 大戰略 필요한 한국 외교". 김태효, 『조선일보』, 2015.4.7. 2015.8.29 접속.
"'귀향', 끌려간 소녀의 애가 한 편 얻는가". 곽병찬, 『한겨레』, 2015.2.4. 2015.9.13 접속.
"'평범한 악'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켰다". 김우창, 『한겨레』, 2014.5.1. 2015.8.21 접속.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조효제, 『한겨레』, 2015.4.28. 2015.8.12 접속.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을 넘어!". 박노자, 『한겨레』, 2014.8.5. 2015.8.21 접속.
"독일의 기억·기념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길". 곽병찬, 『한겨레』, 2014.3.24. 2015.9.18 접속.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유대인 비하?". 이한수, 『조선일보』, 2007.2.16. 2015.7.11 접속.
"사랑은 조건적". 정희진, 『한겨레』, 2014.5.16. 2015.9.12 접속.
"양심이 불가능한 사회". 박노자, 『한겨레』, 2013.10.29. 2015.8.25 접속.

"카프카에서 출발하여 까마귀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희진, 『한겨레』, 2014.9.26. 2015.9.21 접속.

국문

“Are South Koreans Really Negative About Jews?” , Kwaak, Jeyup S. *The Wall Street Journal* 2014, May 14. Accessed June 24, 2015.

“Japanese Paper Apologizes for anti-Semitic advert.” , Ryall, Julian, *The Telegraph* 2014, December 8. Accessed July 12, 2015.

“Korean Anti-Semitism.” , Yun, C. K, *Korea Times* 1988, February 17. Accessed through microfilm June 30, 2015.

“Pro-Erdogan Paper Blames Mine Disaster on the Jews.” , *Haaretz* 2014, May 21. Accessed June 23, 2015.

“Rhie Won-bok Condemned by US Government.” , Schwartzman, Nathan, *Asian Correspondent* 2008, March 16. Accessed July 11, 2015.

“Shark Attacks Not Linked to Mossad Says Israel.” , Knell, Yolande, *BBC News* 2010, December 7. Accessed July 13, 2015.

“Why Koreans study Talmud.” , Hirschfeld, Tzofia, *Ynet News* 2011, December 5. Accessed June 23, 2015.

4. 기타 검색 자료

국문

“[천안함] 이스라엘 잠수함 승조원 시신은 미국 메릴랜드 체임버스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 『한겨레 블로그』, 2011.2.17. 2015.7.14 접속. http://blog.hani.co.kr/gumdansan21/40738.

“<NWO 음모> KPOP 가수 '투애니원'의 뮤비 속 상징들!” , 『다음 블로그』, 2011.6.29. 2015.7.5 접속. http://m.blog.daum.net/bk1981/5590#.

“316 리터 스테인레스 스틸 이스라엘 다윗의 별 펜던트 브랜드

보석 문 목걸이 보석.”, 『알리익스프레스』 2015 (no date). 2015.7.5 접속. http://ko.aliexpress.com/item/316L-stainless-steel-Israel-Star-of-David-pendant-brand-jewelry-statement-necklace-bijoux-colar-masculino/32222868001.html.

“문화를 통한 마인드 컨트롤.”, *Mybloworld* 2011, June (no date). 2015.7.5 접속. http://mybloworld0987.blogspot.kr/2011/06/blog-post.html.

"세월호 시위대에 고한다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 박광성, 『미디어펜』2015.4.20. 2015.7.15 접속.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22.

“실버 다윗의 별목걸이.”, 『코코샤인』, 2015 (no date). 2015.7.5 접속. http://w.happysupergirl.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3399&main_cate_no=70&display_group.

“음모론 저장소/스압.”, *SUFF* 2014.2.14. 2015.7.6 접속. http://ksuff.blogspot.kr/2014/02/translate.html.

“이스라엘과 세월호.”, 지성수, 『한겨레 블로그』, 2015.4.22. 2015.7.10 접속. http://blog.hani.co.kr/sydneytaxi/47443.

“일루미나티의 정체와 NWO.”, 『진실은 생명이다』, 2013.9.9. 2015.7.5 접속. http://kokkili.blogspot.kr/2013/09/illuminati.html.

제 34 회 어린이 작품 공모전 당선작. Accessed July 27, 2015. http://kid.goodnews.or.kr/gtrain/gtrain/200706/gongmo.PDF.

“천안함 좌초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한겨레 블로그』, 2014.2.10. 2015.7.14 접속. http://blog.hani.co.kr/9084dldudwn/96839.

“천안함사태로 서방세계가이상하다… (유태인)… 냉전시대로 가는가.”, 『다음 블로그』, 2010.7.9. 2015.7.13 접속. http://tip.daum.net/question/61097839.

Information Collect, 2015 (no date). 2015.7.5 접속. http://informationcollecters.blogspot.kr/.

영문

Anti-Defamation League. 2014. "ADL GLOBAL 100." Accessed June 24, 2015. http://global100.adl.org/.

"Argentine Foreign Minister Turns on Jewish Leaders as AMIA Controversy Deepens." , Cohen, Ben, *The Tower* 2015, January 5. Accessed July 13, 2015. http://www.thetower.org/1977-argentine-foreign-minister-turns-on-jewish-leaders-as-amia-controversy-deepens/.

FY! EXO. 2013. December 24. Accessed July 5, 2015. http://fy-exo.com/post/70898638572.

"Malaysian Airlines MH17: Another 'False Flag Operation' by the US-NATO-Israel War Cabal?" , Chang, Matthias, *GlobalResearch* 2014, July 21. Accessed July 13, 2015. http://www.globalresearch.ca/malaysian-airlines-mh17-another-false-flag-operation-by-the-us-nato-israel-war-cabal/5392658.

"MH370: Evidence of False Flag." , Maart, Keith, *Veterans Today* 2014, April 26. Accessed July 13, 2015. http://www.veteranstoday.com/2014/04/26/mh370-evidence-of-false-flag/.

Simon Wiesenthal Center. 2007. "Wiesenthal Center Denounces Nazi-Like Depiction of Jews by Prolific and Popular Korean Author." February 8, Accessed July 11, 2015. http://www.wiesenthal.com/site/apps/nlnet/content2.aspx?c=lsKWLbPJLnF&b=4442245&ct=5852979#.VaB1S2aweUk.

"South Korea Mers Emerged out of the Pentagon's Biowarfare Labs." , Shimatsu, Yoichi, *The 4t Media* 2015, June 18. Accessed July 15, 2015. http://www.4thmedia.org/2015/06/south-korea-mers-emerged-out-of-the pentagons-biowarfare-labs-2/.

To Infinity and Beyond Blogshop. 2012. “Super Junior Accessories.” October 2, Accessed July 7, 2015. http://toinfinityandbeyondblogshop.blogspot.kr/2012/10/super-junior-accessories.html.

Tvtropes. 2015. “YMMV: T-ara.” Accessed July 7, 2015. http://tvtropes.org/pmwiki/pmwiki.php/YMMV/Tara.

Youtube. [MV] T-ARA (티아라) - yayaya (야야야). Accessed July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sLfRdyqxXJk.

Youtube. 2NE1 - "I AM THE BEST (내가 제일 잘 나가)" M/V. Accessed July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j7_lSP8Vc3o.

Youtube. Queen B'Z (퀸비즈) - "Bad (Original Ver.)" Official Music Video. Accessed July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OPzMIU4FVcg.

5. 사전 검색 자료

국문

네이버 사전. “유대인”, “유태인”. Accessed July 23, 2015. http://dic.naver.com/.

엣센스 영한사전 = Minjung’s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 1980, 1991, 2014. “Jew”; “Jewish.” 민중서림 편집국 편 (民衆書林 編輯局編).

The *YBM All in All Dictionary*. “역시”. Mobile phone application.

영문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Fifth Edition. 2011. "Fetish." Accessed July 6, 2015. http://www.thefreedictionary.com/fetish.

<부록 - 분석한 사설과 칼럼>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1	유대인 + 교육	1	2015 년 6 월 12 일	"[만물상] '일등病'"	오태진	3 장	79	2015 년 4 월 28 일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조효제	6 장
		2	2015 년 4 월 22 일	"[기자의 시각] '새로운 貴族'의 탄생"	오윤희	4 장	80	2015 년 3 월 25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대학의 이념"	조한욱	-
		3	2015 년 1 월 21 일	"[기자의 시각] 파업하는 유대인 高校生들"	박국희	3 장	81	2014 년 12 월 14 일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	김누리	6 장
		4	2014 년 11 월 5 일	"[발언대] 漢字 지식이 科學・창의력 이끈다"	전광진	3 장	82	2014 년 8 월 5 일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 을 넘어!"	박노자	5 장
		5	2014 년 8 월 4 일	"[만물상] '행복 십계명'"	오태진	-	83	2014 년 5 월 14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이상한 정언명령"	조한욱	-
		6	2014 년 5 월 2 일	"[특파원 리포트] 19 만 3000 명 vs 55 명"	박국희	6 장	84	2014 년 5 월 1 일	" '평범한 악' 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켰다"	김우창	-
		7	2013 년 12 월 19 일	"[기고] '동방無禮지국' 안 되려면"	민현식	3 장	85	2014 년 4 월 9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제르미날"	조한욱	-
		8	2013 년 10 월 3 일	"[발언대]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의 허와 실"	현용수	3 장	86	2014 년 3 월 13 일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③—이제 '기본소득제' 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홍세화	-
		9	2013 년 8 월 31	"[사설] 일본은	사설	6 장	87	2014 년 2 월 19	"[조한욱의 서양사람]	조한욱	6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일	왜곡하고 한국은 알려고 하지 않는 '關東대학살'"				일	홀로코스트 논쟁"		
							88	2013 년 12 월 18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독일 민족주의 물리학"	조한욱	-
							89	2013 년 10 월 29 일	"양심이 불가능한 사회"	박노자	-
							90	2013 년 10 월 27 일	"[싱크탱크 시각] 왜 독일이 강한가"	이창곤	6 장
							91	2013 년 8 월 15 일	"[특별기고] 고노담화, 역사교육, 인문학"	도정일	6 장
							92	2013 년 7 월 17 일	"[왜냐면] 소외와 차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박인규	6 장
2	유태인 + 교육	10	2014 년 12 월 10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34)] 화가 샤갈이 바람 안피운 것은 집터 때문?"	문갑식	-	-	-	-	-	-
		11	2014 년 6 월 27 일	"[조선일보를 읽고] 아무리 사실이라 믿어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문유석	-					
		12	2014 년 6 월 26 일	"[양상훈 칼럼] 6 월에 생각하는	양상훈	3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철이 든 나라'"							
		13	2014 년 5 월 21 일	"[기고] 한반도 벗어나 '韓民族 세계 국가' 준비하자"	좌승희	4 장					
		14	2014 년 3 월 25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3 장					
3	유대인 + 탈무드	15	2015 년 1 월 6 일	"[일사일언] 청년이여, 숲으로 가라"	손관승	-	93	2014 년 8 월 7 일	"[아침 햇발] 스피노자, 가자, 예언자"	고명섭	5 장
							(86)	2014 년 3 월 13 일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③—이제 '기본소득제'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홍세화	-
4	유태인 + 탈무드	(14)	2014 년 3 월 25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3 장	-	-	-	-	-
5	유대인 + 돈	16	2015 년 6 월 13 일	"[만물상] 안네의 일기 '속편'"	김태익	-	94	2015 년 6 월 19 일	"[크리틱] 역병시대"	서해성	-
		17	2015 년 5 월 11 일	"[인문의 향연] 現金이 좋으세요? 膳物이 좋으세요?"	윤대현	-	95	2015 년 5 월 31 일	"[2030 잠금해제] 나의 학습권은 우월한가"	희정	-
		18	2015 년 3 월 24 일	"[태평로] 문 닫게 된 삼일로 창고극장을	김태익	-	96	2015 년 5 월 3 일	"[유레카] 몬주익"	최우성	4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보며"							
		(4)	2014 년 11 월 5 일	"[발언대] 漢字 지식이 科學·창의력 이끈다"	전광진	3 장	97	2015 년 3 월 6 일	"[크리틱] 장발장은행은 어디 있는가"	서해성	-
		19	2014 년 7 월 26 일	"[데스크에서] 폭탄주 vs 마오타이 알잔"	김기훈	4 장	98	2015 년 1 월 29 일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 의 빈자리"	홍세화	4 장
		20	2014 년 4 월 10 일	"[朝鮮칼럼 The Column] 샤일록을 위한 辯論"	안경환	4 장	99	2014 년 5 월 16 일	"사랑은 조건적"	정희진	-
		21	2013 년 11 월 26 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60] 사람은 옷을 만들고 옷은 사람을 만든다"	김대식	-	(84)	2014 년 5 월 1 일	" ‘평범한 악’ 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켰다"	김우창	-
		22	2013 년 8 월 6 일	"[박은주의 터치! 코리아] 이제 아들덕 좀 보자"	박은주	-	100	2014 년 1 월 16 일	"[왜냐면] 2014 년을 사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글"	은종복	6 장
							(89)	2013 년 10 월 29 일	"양심이 불가능한 사회"	박노자	-
							(90)	2013 년 10 월 27 일	"[싱크탱크 시각] 왜 독일이 강한가"	이창곤	6 장
6	유태인 + 돈	23	2014 년 11 월 20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29)] '보르도, 보르도, 보르도!' 영국인들이 왜 하필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에	문갑식	-	-	-	-	-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열광할까?"							
		24	2014 년 10 월 20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26)] 명탐정 셜록 홈즈 박물관에 가보니 한숨만 나오네"	문갑식	-					
		(14)	2014 년 3 월 25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3 장					
7	유대인 + 파워	25	2015 년 6 월 2 일	"[발언대] 700 만 在外동포를 국가 발전 동력으로"	조규형	-	101	2015 년 5 월 20 일	"[편집국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박민희	6 장
8	유태인 + 파워	(14)	2014 년 3 월 25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3 장	-	-	-	-	-
9	유대인 + 힘	26	2015 년 6 월 23 일	"[만물상] 용서의 힘"	김태익	-	102	2015 년 2 월 4 일	" '귀향', 끌려간 소녀의 애가 한 편 얻는가"	곽병찬	-
		(2)	2015 년 4 월 22 일	"[기자의 시각] '새로운 貴族'의 탄생"	오윤희	4 장	103	2014 년 12 월 29 일	"[왜냐면] 히틀러, 헌재 결정 그리고 지성의 공백"	박영규	-
		27	2015 년 4 월 13 일	"[기자의 시각] '두 개의 혀'를 가진 與黨"	최승현	-	104	2014 년 12 월 23 일	"[유레카] 리나후도"	김지석	-
		(18)	2015 년 3 월 24 일	"[태평로] 문 닫게 된 삼일로	김태익	-	105	2014 년 11 월 12 일	"[왜냐면] '죽음'에 걸어가는 일"	문정빈	6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창고극장을 보며"							
		28	2015 년 2 월 23 일	"[기자의 시각] 反省의 힘"	노석조	-	106	2014 년 9 월 18 일	"[특별기고] 카인의 분노와 냉소적 항변"	김경재	-
		29	2014 년 12 월 30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브란덴부르크門에서 광화문을 본다"	문갑식	-	(82)	2014 년 8 월 5 일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 을 넘어!"	박노자	5 장
		30	2014 년 8 월 26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12)] 교황이 프랑스왕에게 볼모로 잡혀 머물렀던 아비뇽 교황청"	문갑식	-	107	2014 년 5 월 12 일	"[유레카] 죄책감"	박순빈	-
		(5)	2014 년 8 월 4 일	"[만물상] '행복 십계명'"	오태진	-	(84)	2014 년 5 월 1 일	" '평범한 악' 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켰다"	김우창	-
		31	2014 년 7 월 2 일	"[기고] 화학적 統合 이뤄야 할 정부 출연 연구소들"	이병권	3 장	108	2014 년 1 월 9 일	"[세상 읽기] 전체주의와 생각의 힘"	김종대	-
		32	2014 년 2 월 8 일	"[사설] 東海 병기 · 위안부 만화전서 日 이겨낸 민간의 힘"	사설	4 장	109	2013 년 9 월 4 일	"[야! 한국사회] 불온한 '전라도의 힘' "	이라영	5 장
		33	2014 년 1 월 2 일	"[기고]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박세환	6 장					
		34	2013 년 9 월 4 일	"[박두식 칼럼]	박두식	5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시리아 사태, 미국 退潮의 시작인가"							
10	유태인 + 힘	35	2015 년 4 월 7 일	"[朝鮮칼럼 The Column] 大戰略 필요한 한국 외교"	김태효	-	-	-	-	-	-
		36	2014 년 7 월 17 일	"[시론] 민주주의만큼 성숙해야 할 法治主義"	장영수	-					
		(12)	2014 년 6 월 26 일	"[양상훈 칼럼] 6 월에 생각하는 '철이 든 나라'"	양상훈	3 장					
		(14)	2014 년 3 월 25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김우식, 윤창번에게 '創造'를 훈수하다"	문갑식	3 장					
		37	2013 년 12 월 20 일	"[강천석 칼럼] 惡의 톱니바퀴에 낀 2300 만 北 동포 비명"	강천석	-					
11	유대인 + 권력	(30)	2014 년 8 월 26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12)] 교황이 프랑스왕에게 볼모로 잡혀 머물렀던 아비뇽 교황청"	문갑식	-	(94)	2015 년 6 월 19 일	"[크리틱] 역병시대"	서해성	-
		38	2013 년 7 월 31	"[사설] '나치 방식	사설	6 장	110	2015 년 5 월 29	"[크리틱] 강기훈 학교"	서해성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일	改憲' 들고나온 막가는 日 극우 정치인들"				일			
							(98)	2015 년 1 월 29 일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 의 빈자리"	홍세화	4 장
							(103)	2014 년 12 월 29 일	"[왜냐면] 히틀러, 헌재 결정 그리고 지성의 공백"	박영규	-
							(104)	2014 년 12 월 23 일	"[유레카] 리나후도"	김지석	-
							(81)	2014 년 12 월 14 일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	김누리	6 장
							111	2014 년 10 월 27 일	"[조현의 휴심정] 세상을 바꾼 자들의 믿음"	조현	-
							(106)	2014 년 9 월 18 일	"[특별기고] 카인의 분노와 냉소적 항변"	김경재	-
							(99)	2014 년 5 월 16 일	"사랑은 조건적"	정희진	-
							112	2014 년 5 월 7 일	"[곽병찬 칼럼] 속이지 마라"	곽병찬	-
							113	2014 년 3 월 24 일	"독일의 기억·기념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길"	곽병찬	6 장
							114	2013 년 12 월 2 일	"[왜냐면] 교황 비오 12 세와 교회의 정치 참여"	고연미	-
							(109)	2013 년 9 월 4 일	"[야! 한국사회] 불온한 ‘전라도의	이라영	5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힘’"		
12	유태인 + 권력	39	2014 년 8 월 6 일	"[시론] 가자(Gaza) 유혈 사태 부른 이·팔 강경파"	인남식	5 장	-	-	-	-	-
		40	2014 년 4 월 4 일	"[김정운의 敢言異說, 아니면 말고] 女子는 男子를 위해 화장하지 않는다!"	김정운	-					
		(37)	2013 년 12 월 20 일	"[강천석 칼럼] 惡의 톱니바퀴에 낀 2300 만 北 동포 비명"	강천석	-					
13	유대인 + 세력	(30)	2014 년 8 월 26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12)] 교황이 프랑스왕에게 볼모로 잡혀 머물렀던 아비뇽 교황청"	문갑식	-	(94)	2015 년 6 월 19 일	"[크리틱] 역병시대"	서해성	-
		(33)	2014 년 1 월 2 일	"[기고]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박세환	6 장	115	2015 년 6 월 5 일	"[사설]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방치하는 야만"	사설	-
		41	2013 년 10 월 16 일	"[박두식 칼럼] 과거사 피로감"	박두식	6 장	(110)	2015 년 5 월 29 일	"[크리틱] 강기훈 학교"	서해성	-
		(34)	2013 년 9 월 4 일	"[박두식 칼럼] 시리아 사태, 미국	박두식	5 장	(98)	2015 년 1 월 29 일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	홍세화	4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退潮의 시작인가"							
		(9)	2013 년 8 월 31 일 (2014 년 11 월 5 일에 다시 발표되었다)	"[사설] 일본은 왜곡하고 한국은 알려고 하지 않는 '關東대학살'"	사설	6 장	116	2014 년 12 월 17 일	"[야! 한국사회] 사랑의 깃발이 드높다"	권명아	-
							117	2014 년 9 월 26 일	"카프카에서 출발하여 까마귀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희진	-
							(93)	2014 년 8 월 7 일	"[아침 햇발] 스피노자, 가자, 예언자"	고명섭	5 장
							(82)	2014 년 8 월 5 일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을 넘어!"	박노자	5 장
							118	2014 년 7 월 30 일	"[왜냐면] '가자의 절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김어진	5 장
							(112)	2014 년 5 월 7 일	"[곽병찬 칼럼] 속이지 마라"	곽병찬	-
							(88)	2013 년 12 월 18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독일 민족주의 물리학"	조한욱	-
							(89)	2013 년 10 월 29 일	"양심이 불가능한 사회"	박노자	-
							119	2013 년 9 월 9 일	"왜냐면] 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을 위한 집을 짓자"	송진영	-
14	유태인 +	42	2015 년 2 월 11	"[박두식 칼럼]	박두식	-	-	-	-	-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세력		일	야당의 '싸가지病' 다시 도진 건가"							
		43	2014 년 12 월 11 일	"[김기철의 동서남북] 야드 바셈에서 배운 歷史戰爭(역사전쟁) 승리법"	김기철	6 장					
		(39)	2014 년 8 월 6 일	"[시론] 가자(Gaza) 유혈 사태 부른 이·팔 강경파"	인남식	5 장					
15	유대인 + 지배	(2)	2015 년 4 월 22 일	"[기자의 시각] '새로운 貴族'의 탄생"	오윤희	4 장	(94)	2015 년 6 월 19 일	"[크리틱] 역병시대"	서해성	-
		44	2015 년 1 월 21 일	"[사설] 아베 홀로코스트 추모가 쇼로 비치는 까닭"	사설	6 장	(110)	2015 년 5 월 29 일	"[크리틱] 강기훈 학교"	서해성	-
		45	2015 년 1 월 8 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118] 뇌와 트라우마"	김대식	-	(98)	2015 년 1 월 29 일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 의 빈자리"	홍세화	4 장
		46	2014 년 11 월 18 일	"[기자의 시각] 獨·이스라엘 수교 50 주년"	박국희	6 장	(103)	2014 년 12 월 29 일	"[왜냐면] 히틀러, 헌재 결정 그리고 지성의 공백"	박영규	-
		47	2014 년 1 월 29 일	"[사설]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사설	6 장	(81)	2014 년 12 월 14 일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	김누리	6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33)	2014 년 1 월 2 일	"[기고]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박세환	6 장	(111)	2014 년 10 월 27 일	"[조현의 휴심정] 세상을 바꾼 자들의 믿음"	조현	-
		48	2013 년 12 월 17 일	"[독자의 贊反] '아베의 일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갑수 배영수	6 장	(83)	2014 년 5 월 14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이상한 정언명령"	조한욱	-
		49	2013 년 8 월 13 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45] 우리들 머리 바깥의 벽, 그리고 머리 안의 벽"	김대식	6 장	(86)	2014 년 3 월 13 일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③—이제 '기본소득제'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홍세화	-
							(88)	2013 년 12 월 18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독일 민족주의 물리학"	조한욱	-
							(91)	2013 년 8 월 15 일	"[특별기고] 고노담화, 역사교육, 인문학"	도정일	6 장
							120	2013 년 8 월 14 일	"[편집국에서] 역사의 복수"	이제훈	6 장
							(89)	2013 년 10 월 29 일	"양심이 불가능한 사회"	박노자	-
16	유태인 + 지배	(37)	2013 년 12 월 20 일	"[강천석 칼럼] 惡의 톱니바퀴에 낀 2300 만 北 동포 비명"	강천석	-	-	-	-	-	-
17	유대인 + 장악	(25)	2015 년 6 월 2 일	"[발언대] 700 만 在外동포를 국가 발전	조규형	-	(97)	2015 년 3 월 6 일	"[크리틱] 장발장은행은 어디 있는가"	서해성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동력으로"							
		50	2014 년 5 월 27 일	"[윤희영의 News English]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푸틴"	윤희영	-					
18	유태인 + 장악	51	2013 년 11 월 26 일	"[류근일 칼럼] '주님 이름 끼고 주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류근일	-	-	-	-	-	-
19	유대인 + 통제	-	-	-	-	-	(91)	2013 년 8 월 15 일	"[특별기고] 고노담화, 역사교육, 인문학"	도정일	6 장
20	유태인 + 통제	(42)	2015 년 2 월 11 일	"[박두식 칼럼] 야당의 '싸가지病' 다시 도진 건가"	박두식	-	-	-	-	-	-
		(23)	2014 년 11 월 20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29)] '보르도, 보르도, 보르도!' 영국인들이 왜 하필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에 열광할까?"	문갑식	-					
		52	2014 년 8 월 29 일	"[김정운의 敢言異說, 아니면 말고] 난 '그 메기'가 '그 메기'인	김정운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줄 알았다!"							
21	유대인 + 이스라엘	53	2015 년 6 월 11 일	"[기자의 시각] '석유 시대'의 終末"	노석조	-	(98)	2015 년 1 월 29 일	"[특별기고] "나는 샤를리다!" 의 빈자리"	홍세화	4 장
		54	2015 년 4 월 17 일	"[기자의 시각] 國家의 배짱"	노석조	6 장	(111)	2014 년 10 월 27 일	"[조현의 휴심정] 세상을 바꾼 자들의 믿음"	조현	-
		55	2015 년 2 월 2 일	"[기자의 시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박국희	6 장	121	2014 년 10 월 7 일	"[아침 햇발] 이스라엘 · 쿠바 그리고 사드"	김의겸	5 장
		(3)	2015 년 1 월 21 일	"[기자의 시각] 파업하는 유대인 高校生들"	박국희	3 장	(106)	2014 년 9 월 18 일	"[특별기고] 카인의 분노와 냉소적 항변"	김경재	-
		(44)	2015 년 1 월 21 일	"[사설] 아베 홀로코스트 추모가 쇼로 비치는 까닭"	사설	6 장	(93)	2014 년 8 월 7 일	"[아침 햇발] 스피노자, 가자, 예언자"	고명섭	5 장
		(46)	2014 년 11 월 18 일	"[기자의 시각] 獨 · 이스라엘 수교 50 주년"	박국희	6 장	122	2014 년 8 월 6 일	"[편집국에서] 남 일이 아니다!"	박민희	5 장
		56	2014 년 10 월 4 일	"[기자의 시각] 되살아난 反유대주의"	박국희	5 장	(82)	2014 년 8 월 5 일	"군사주의를 넘어, '국익' 을 넘어!"	박노자	5 장
		57	2014 년 8 월 27 일 2014 년 8 월 26 일에 박국희의 칼럼으로 발표된다	"[오늘의 100 자평] 이스라엘 '무차별 아랍人 증오'… 해외 유대인 "新나치	사설	5 장	(118)	2014 년 7 월 30 일	"[왜냐면] '가자의 절규' 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김어진	5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행태""							
		58	2014 년 7 월 31 일	"[기자의 시각] 히틀러도 어린이였다?"	박국희	5 장	123	2014 년 3 월 19 일	"[왜냐면] 독일과 일본 그리고 보통국가"	김일수	6 장
		59	2014 년 7 월 1 일	"[기자의 시각] 위안부 歷史館 없는 한국"	박국희	6 장	(87)	2014 년 2 월 19 일	"[조한욱의 서양사람] 홀로코스트 논쟁"	조한욱	6 장
		60	2014 년 6 월 19 일	"[기자의 시각] 울지 않는 피랍소년들 父母"	박국희	-	(108)	2014 년 1 월 9 일	"[세상 읽기] 전체주의와 생각의 힘"	김종대	-
		(6)	2014 년 5 월 2 일	"[특파원 리포트] 19 만 3000 명 vs 55 명"	박국희	6 장	124	2013 년 9 월 29 일	"[유레카]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	최재봉	-
		61	2014 년 2 월 18 일	"[만물상] '국적 쇼핑'"	방현철	-	(109)	2013 년 9 월 4 일	"[야! 한국사회] 불온한 '전라도의 힘'"	이라영	5 장
		(32)	2014 년 2 월 8 일	"[사설] 東海 병기 · 위안부 만화전서 日 이겨낸 민간의 힘"	사설	4 장					
		(47)	2014 년 1 월 29 일	"[사설]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사설	6 장					
		62	2014 년 1 월 21 일	"[기자의 시각] '샬롬'과 '살렘'"	노석조	-					
		63	2014 년 1 월 20 일	"[사설] 여야가 모사드에서	사설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정말 봐야 할 것"							
		(7)	2013 년 12 월 19 일	"[기고] '동방無禮지국' 안 되려면"	민현식	3 장					
		(48)	2013 년 12 월 17 일	"[독자의 贊反] '아베의 일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갑수 배영수	6 장					
		(8)	2013 년 8 월 31 일	"[발언대]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의 허와 실"	현용수	3 장					
		(34)	2013 년 9 월 4 일	"[박두식 칼럼] 시리아 사태, 미국 退潮의 시작인가"	박두식	5 장					
		64	2013 년 8 월 21 일	"[만물상] 가림막 뒤 국정원 직원"	오태진	-					
22	유태인 + 이스라엘	65	2015 년 1 월 19 일	"[시론] 佛 테러 계기 '小규모 타깃 공격' 대비해야"	조홍식	-	-	-	-	-	-
		(43)	2014 년 12 월 11 일	"[김기철의 동서남북] 야드 바셈에서 배운 歷史戰爭(역사전쟁) 승리법"	김기철	6 장					
		(39)	2014 년 8 월 6 일	"[시론] 가자(Gaza) 유혈 사태	인남식	5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부른 이·팔강경파"							
		(12)	2014 년 6 월 26 일	"[양상훈 칼럼] 6 월에 생각하는 '철이 든 나라'"	양상훈	3 장					
		66	2013 년 9 월 13 일	"[강천석 칼럼] 묵은 시대와 作別하는 법"	강천석	-					
23	유대인 + 독일 + 일본	67	2015 년 5 월 21 일	"[동서남북]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김기철	6 장	(101)	2015 년 5 월 20 일	"[편집국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박민희	6 장
		68	2015 년 4 월 30 일	"[만물상] '일본의 쉰들러'"	오태진	6 장	125	2015 년 5 월 4 일	"[시론] '책 읽는 서울'을 꿈꾸며"	은종복	-
		69	2015 년 3 월 10 일	"[사설] 일본서 "독일은 역사와 똑바로 마주했다"고 한 메르켈 총리"	사설	6 장	(81)	2014 년 12 월 14 일	"[세상 읽기] 무릎 꿇는 사회"	김누리	6 장
		70	2015 년 2 월 14 일	"[사설] '대통령 下野'까지 거론한 정청래의 自害性 막말 시리즈"	사설	-	126	2014 년 4 월 20 일	"[세상 읽기] 히틀러, 아베, 분노의 정치"	백태웅	6 장
		(55)	2015 년 2 월 2 일	"[기자의 시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박국희	6 장	(113)	2014 년 3 월 24 일	"독일의 기억·기념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길"	곽병찬	6 장
		(29)	2014 년 12 월 30 일	"[문갑식의 세상읽기] 브란덴부르크門에서	문갑식	-	(123)	2014 년 3 월 19 일	"[왜냐면] 독일과 일본 그리고 보통국가"	김일수	6 장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광화문을 본다"							
		(46)	2014 년 11 월 18 일	"[기자의 시각] 獨·이스라엘 수교 50 주년"	박국희	6 장	(100)	2014 년 1 월 16 일	"[왜냐면] 2014 년을 사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글"	은종복	6 장
		(59)	2014 년 7 월 1 일	"[기자의 시각] 위안부 歷史館 없는 한국"	박국희	6 장	(91)	2013 년 8 월 15 일	"[특별기고] 고노담화, 역사교육, 인문학"	도정일	6 장
		(6)	2014 년 5 월 2 일	"[특파원 리포트] 19 만 3000 명 vs 55 명"	박국희	6 장	(120)	2013 년 8 월 14 일	"[편집국에서] 역사의 복수"	이제훈	6 장
		71	2014 년 2 월 17 일	"[특파원 리포트] '역사 전쟁'도 냄비처럼 해서야"	이성훈	6 장					
		72	2014 년 2 월 4 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70]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	김대식	6 장					
		(47)	2014 년 1 월 29 일	"[사설]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사설	6 장					
		73	2014 년 1 월 22 일	"[김태훈의 트렌드 돋보기] 이매뉴얼家의 독일 용서"	김태훈	6 장					
		74	2014 년 1 월 7 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66]	김대식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에니그마, 뇌, 그리고 동성연애"							
		(41)	2013 년 10 월 16 일	"[박두식 칼럼] 과거사 피로감"	박두식	6 장					
		75	2013 년 10 월 4 일	"[조선일보를 읽고] '무력분쟁하에서 여성 권리' 언급한 아베의 뻔뻔함"	박종세	6 장					
		(49)	2013 년 8 월 13 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45] 우리들 머리 바깥의 벽, 그리고 머리 안의 벽"	김대식	6 장					
		76	2013 년 8 월 3 일	"[사설] 미국과 유럽이 나서야만 일본은 잘못 인정하나"	사설	6 장					
		(38)	2013 년 7 월 31 일	"[사설] '나치 방식 改憲' 들고나온 막가는 日 극우 정치인들"	사설	6 장					
24	유태인 + 독일 + 일본	(43)	2014 년 12 월 11 일	"[김기철의 동서남북] 야드 바셈에서 배운 歷史戰爭(역사전쟁) 승리법"	김기철	6 장	-	-	-	-	-

	주요 검색어	『조선일보』					『한겨레』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번호	날짜	제목	기자	기사가 언급되는 장
		77	2014 년 11 월 25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30)] 일본계 와인회사가 동양인 차별 더 심해"	문갑식	-					
		(23)	2014 년 11 월 20 일	"[문갑식 기자의 Oxford Letter(29)] '보르도, 보르도, 보르도!' 영국인들이 왜 하필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에 열광할까?"	문갑식	-					
		(52)	2014 년 8 월 29 일	"[김정운의 敢言異說, 아니면 말고] 난 '그 메기'가 '그 메기'인 줄 알았다!"	김정운	-					
		78	2014 년 3 월 25 일	"[김대중 칼럼]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것들"	김대중	6 장					

<Abstract>

Percep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Jewish People through Media in Korean Society

Gilad Weiss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way Jews are presented in Korean media. Comparing two newspapers known for their different political alignment -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and more Progressive *Hankyoreh*, might reflect different perceptions of Koreans regarding the Jewish people.

This research focuses on four topics that Koreans usually associate with Jews. The first is what Koreans call "Jewish Education" and the common stereotype of the "smart Jew" or the "Jewish genius". It is believed that Jewish education is the key to their "intellectual superiority", their astonishing achievements and their disproportionate percentage among Nobel Prize laureates, which Koreans often mention. The second topic is

referred to as "Jewish Power" and involves the belief in a Jewish conspiracy for domination over world politics, media, Wall Street and Hollywood. The third topic is the on-going, never-ending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ts Arab neighbors, or more specifically, the Palestinians. The final topic is the dominant feeling among Koreans that while the Jews won recognition and compensations for the Holocaust, Koreans never really gained recognition for the atrocities committed upon th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inly the issue of "Comfort Women", young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Given the abundance of newspaper articles regarding Jews, this research was restricted to editorials and columns only. The time period was restricted to July 1st 2013 to June 30th 2015. This period would hopefully allow to us to identify possible changes in representations of Jews, following the 2014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that broke out on July 8th of that year.

The search was done by defining 24 combinations of search-words. These include, among others, such combinations as "Jews + education", "Jews + money", "Jews + power", "Jews + Israel", "Jews + Germany + Japan". A total of 126 editorials and columns matching the search words and the time period were analyzed.

Regarding the topic of "Jewish Education", I found that while the *Chosun Ilbo* has treated this topic to a certain degree, and published 8 articles that deal with, or refer to "Jewish Education", the *Hankyoreh* did

not write on this matter at all. The *Chosun Ilbo* includes idealized descriptions of "Jewish Education", and stresses the need to implement "Jewish learning methods" into Korean society.

Regarding the topic of "Jewish Power", I have found no articles dealing directly with this matter. However, the description in 4 *Chosun Ilbo* articles and 2 *Hankyoreh* articles seem to support the notion that all Jews are rich and powerful.

I found the *Hankyoreh* to be much more critical towards Israel than the *Chosun Ilbo*. While both describe Israelis' hatred towards Palestinians, and Arabs in general, the *Hankyoreh* uses words like massacre and slaughter for depicting Israeli military actions against Palestinians. The *Chosun Ilbo* did not use these words, even in the midst of the 2014 war. 3 *Hankyoreh* articles compare Israel to the Nazis.

On the topic of recognition and compensations for past victimhood, both papers emphasize the different ways in which Germany and Japan treat their past. Within the above mentioned time period, this argument was found in 8 articles published by each of the two newspapers. In 9 *Chosun Ilbo* articles, Japanese leaders are depicted as hypocrites for acknowledging the Jewish Holocaust while not accepting their own country's responsibility of atrocities committed upon Koreans and other nations in Asi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No such argument is found in the *Hankyoreh*. 5 *Chosun Ilbo* articles recommend implementing methods used by the Jews to promote recognition for past atrocities. The *Chosun Ilbo* regards Jewish

organizations like the Simon Wiesenthal Center as an example for Koreans to follow. Similar argument is not found in the *Hankyoreh*. The *Hankyoreh* is more critical towards history teaching methods within Korea, and mentions not only th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but also crimes committed by the Korean regime under the leadership of Park Chung-Hee. 4 articles on that topic were published in the paper in the above mentioned period. Only one *Chosun Ilbo* editorial is critical towards history education in Korea, but it deals with the remembrance of the massacre of ethnic Koreans by Japanese following the 1923 Great Kanto earthquake, rather than crimes com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60's and 1970's.

Koreans' fascination with the Jewish people is manifested in the abundance of news reports, editorials and columns dealing with various aspects of Jewish culture and history. Numerous books and researches about Jews have been produced , and references to Jews are abundant on the Internet.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ould shed light on Koreans' perceptions of Jews, and the way they are presented in Korean media.

Keywords: Jews, Media Analysis, Chosun Ilbo, Hankyoreh, Stereotypes, Israel

Student ID Number: 2013-24019